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4년 2월  
석사학위 논문

허수경 시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재현 양상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김정원

허수경 시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재현 양상 연구

A study on the aspects of post-colonialism  
reproduction in Heo Su-Kyung's poetry

2024년 2월 23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김정원

허수경 시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재현 양상 연구

지도교수 양 경 언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김정원

# 김정원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오문석 (인)

위 원                      김형중 (인)

위 원                      양경언 (인)

2023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Table of Contents

I. 서론 .....	1
1. 연구 목적 및 연구사 검토 .....	1
2.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	14
II. 재현되지 않은 역사의 재현 .....	21
1. 하위주체로서의 여성 .....	21
2.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신적 난민’으로서의 개인 ...	34
III. 인간-비인간, 지구적 관계의 재현 .....	49
1. 하위주체로서의 비인간 .....	49
2. 지구적 사회에서 ‘공생적 실재’로서의 객체 .....	62
IV. 결론 .....	70
참고문헌 .....	73

## 국문초록

이 연구는 허수경 시에 나타난 역사적 재현 양상을 살피고 허수경의 시 세계에서 재현되는 대상의 확장 지점을 통해 허수경의 시가 기후-생태 위기 시대에 역사적-동시대적 과제를 전면화하고 있음을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허수경 시인의 시적 발화를 통한 재현은 한 시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이전부터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포괄한다. 시인은 여섯 권의 시집을 발표하며 재현의 대상을 확장시켰다. 이러한 ‘축적된 시간’을 통해 허수경은 역사적-동시대적 과제를 전면화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인식에 시의 정치성을 보여주는 예시이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허수경에게 시란 폭력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을 통해 ‘평화’하는 것이다. ‘재현되지 않은 것들의 재현’은 인간의 역사가 지나온 과오를 잊지 않는 노력이다.

II장 ‘재현되지 않은 역사의 재현’에서는 상처의 연속이었던 한반도의 역사 중에서도 재현되지 않은 역사에 주목하여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허수경 시에 나타난 ‘하위주체로서의 여성’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의 재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허수경 시인의 시를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읽는 것은 역사적-동시대적 과제에서 허수경의 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고찰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의 재현 양상은 허수경의 두 번째 시집 『혼자 가는 먼 집』에 주목하여 시인의 첫 번째 이주가 시 세계의 첫 번째 확장에 해당한다는 것을 논증하고 이전의 탈식민주의 연구에서 누락되었던 두 번째 시집의 의미를 찾아보았다.

III장 ‘인간-비인간, 지구적 관계의 재현’에서는 제국의 역사에서 피식민지의 비인간이 받은 폭력에 주목하여 허수경 시에 나타난 ‘하위주체로서의 비인간’과 ‘지구적 사회에서 ‘공생적 실재’로서의 객체’의 재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인간에 한정된 사유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던 탈식민주의는 탈식민주의와 생태주의를 결합하려는 시도로 피식민 주체를 비인간까지 확장시킨다. 이러한 하위주체의 확장은 허수경 시 세계의 두 번째 확장 지점으로 보인다. 허수경의 시편에서 나타나는 하위주체로서의 비인간의 직접적인 발화는 비인간을 인간과 유기적·수평적 관계로 본다는 점에서 탈식민주의 생태학에서 중요시하는 인간-비인간의 관계를 시적 발화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허수경은 이방인으로서

의 정체성을 통해 자신이 하나의 존재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시적 발화를 통해 나타낸다. 이러한 시선은 인간-비인간 관계에서 비인간을 인간의 자리로 올리는 것이 아닌 인간을 하나의 종, 즉 객체로 보는 것이다. ‘객체로서의 인간’은 허수경 시 세계의 세 번째 확장 지점이다. 이는 기존의 탈식민주의 생태학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비인간의 이분법적 한계를 해체하는 발화이며 ‘공생적 실재’는 기후-생태 위기 시대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자리한다.

허수경의 ‘재현’은 시인의 삶이 시작되기 전부터 타계한 이후까지의 시간을 아우른다. 시에서 나타나는 ‘시간의 축적성’은 허수경의 시가 다양한 주제에서 연구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허수경의 시가 한 시대에 매몰되지 않는 것은 시인의 시 세계가 연속적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기후-생태 위기 시대에 허수경 시인의 시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자리한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aspects of post-colonialism reproduction in Heo Su-Kyung's poetry

Kim JungWon

Advisor : Prof. Yang Kyung eon Ph.D.

Dept. of Literature & Cre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

Poetess Heo Su-Kyung's expressive work in poetry transcends any specific era, capturing the essence of the world before, during, and after his lifetime, and even posthumously. Heo has published six collections of poetry, thereby broadening the scope of her thematic representation. This journey through 'accumulated time' allows Heo Su-Kyung to bring both historical and contemporary issues into sharp focus. Her work exemplifies the political aspect of poetry, challenging the notion that poetry is disconnected from real-world concerns. For Heo, poetry serves as a medium for 'peace', achieved by acknowledging and remembering the history of violence. Her concept of 'Representing the Unrepresented' is a dedicated effort to ensure that the lessons from the mistakes of human history are not forgotten.

Chapter II, titled "Representing Unrepresented History," delves into the lesser-known aspects of Korean Peninsula's history, marked by continuous trauma. It explores the depiction of "women as subjects" and "individuals in a capitalist society" in Heo Su-Kyung's poetry, viewed through a postcolonial lens. This analysis is crucial for understanding the relevance of Heo's work in both historical and modern contexts. The chapter pays special attention to Heo's second poetry collection, "A Distant Home I Go Alone." It suggests that Heo's initial journey in poetry mirrors the expansion of her

poetic universe. The chapter seeks to uncover the significance of this second collection, which has previously been overlooked in postcolonial studies.

Chapter III, "Representations of Human–Nonhuman and Global Relationships," explores how Heo Su–Kyung's poetry represents "nonhumans as subjects" and "objects within symbiotic realities" in a global context,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violence endured by non–human entities in imperial histories. Decolonialism, traditionally human–centric, broadens its scope to include non–humans, merging decolonial and ecological perspectives. This represents a significant expansion in Heo Su–Kyung's poetic exploration. The portrayal of nonhumans as subordinate subjects in her poetry unveils the crucial human–nonhuman relationships in postcolonial ecology, depicting them as organically and horizontally connected with humans.

Additionally, Heo Su–Kyung, through his poetic expressions, conveys that her identity, as an outsider, is not confined to a single entity.

This viewpoint refrains from elevating non–humans to human levels in human–nonhuman relationships but instead perceives humans as one species among others, as objects. This concept of 'Human as Object' marks the third expansion in Heo Su–Kyung's poetic universe. This narrative challenges the traditional human–nonhuman binary in postcolonial ecology, and the idea of 'symbiotic existence' emerges as an alternative response in the face of climate and ecological crises.

Heo Su–Kyung's concept of 'representation' extends across a vast timeline, starting before the poetess' life and continuing beyond her death. The 'accumulation of time' evident in her poems suggests that Heo Su–Kyung's work invites analysis across multiple topics (\*subjects). The enduring relevance of Heo Su–Kyung's poetry, not confined to any single era, is attributed to the continuous expansion of her poetic realm.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the current climate and ecological crisis, Heo Su–Kyung's poetry emerges as a meaningful alternative.

# I. 서론

## 1. 연구 목적 및 연구사 검토

이 연구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허수경 시에 나타난 역사적·동시대적 재현 양상을 살피고 재현되는 대상의 확장 지점<sup>1)</sup>을 찾아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 허수경의 시는 남성-여성, 식민인-피식민인, 인간-비인간으로 구분되는 이분법의 세계에서 하위주체의 발화 자리를 확보한다. 특히 하위주체의 발화는 ‘인간’을 넘어 ‘비인간’의 존재론적 지위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시적 형식을 갖춰나가고 있는데 허수경 시인은 이를 통해 역사적-동시대적 과제를 전면화하고 있다. 허수경의 시를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읽는 것은 역사적-동시대적 과제인 기후-생태 복합 위기 담론에서 허수경의 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고찰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더 나아가 허수경의 시에서 하위주체의 존재론적 범주의 확장은 주체로서의 비인간을 넘어 객체로서의 인간을 드러낸다. 이러한 시적 발화는 인간중심적 사유로 빠질 수 있는 인간-비인간 관계 담론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허수경 시인은 1964년 진주에서 태어나 경상대학교에서 문학을 공부했다. 대학교 졸업 후엔 생계를 위해 서울로 상경해 봉천동에서 살며 방송국 스크립터 생활을 이어 나갔다.<sup>2)</sup> 1987년, 『실천문학』 복간호에 「땡벌」 외 4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8년, 첫 번째 시집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가 출간되었다. 서울에서 시를 쓰고 방송작가 일로 생계를 이어 나가던 허수경 시인은 아버지의 타계 이후 생계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지자<sup>3)</sup> 1992

---

1) 본 논문에서 ‘시 세계의 확장 지점’이란 재현 대상에 대한 확장을 의미한다. 허수경의 초기 시에서 나타나는 재현의 양상은 한반도의 (또는 한반도와 관련이 있는) 역사 속 하위주체의 재현이었다. 남성 중심적 역사에서 소외된 하위주체로서의 여성의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시인은 기존의 가부장제·제국주의 이념에서 탈식민적 시도를 이루어낸다. 첫 번째 이주인 ‘진주에서 서울로’의 이주는 이전의 재현 방식과 달리 자본주의 아래에서 내적 감응을 통한 개인의 고통을 재현한다. 이러한 재현의 지점은 이전의 재현과 달리 ‘개인적’이고 ‘감상적’으로 읽힐 수 있으나 흥미로운 점은 내적 감응의 고통 재현 이후 시인이 재현하는 대상이 ‘자국의 역사’에서 ‘타국의 역사’로, ‘과거의 역사’에서 ‘현재의 역사’로, ‘인간’에서 ‘비인간’으로 확장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 세계 변화 맥락에서 볼 때 ‘내적 감응을 통한 고통의 재현’은 재현 대상의 확장에 있어 필연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점을 허수경 시 세계의 첫 번째 확장 지점으로 보고자 한다.

2) 허수경, 『그대는 할말을 어디에 두고 왔는가』, 난다, 2018, 22쪽.

년, 두 번째 시집인 『혼자 가는 먼 집』을 출간하고 공부를 위해 한국을 떠나 독일 마르부르크대학에서 선사 고고학을 공부하며 시와 소설, 동화, 에세이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발표했다. 이후 뮌스터대학으로 옮겨 고대 근동 고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세 번째 시집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는 허수경 시인이 독일로 떠난 후 10년 만에 발간되었다. 허수경 시인은 2011년,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이 발표되었을 때 1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것이 작고 전 마지막 한국 방문이었다. 이후 독일로 돌아가 투병 중에도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를 발간하며 끝까지 시를 놓지 않았던 시인은 2018년 10월 3일, 향년 54세에 세상을 떠났다. 시인이 작고한 후에도 유고집 『가기 전에 쓰는 글들』, 『오늘의 착각』, 『나는 사랑을 너에게서 배웠는데』 등이 출간되었으며 시인의 시와 글은 여전히 독자에게 사랑받고 있다.<sup>4)</sup>

2018년, 허수경 시인의 별세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그의 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허수경 시인의 시는 다채로운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연구에 두 가지 주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주제는 크게 전쟁 연구, 여성성 연구, 정동 연구, 공간 연구, 이산 연구, 기억과 시간성 연구, 주체성 연구, 공동체 연구, 수사적 방법 연구, 탈식민주의 연구 등으로 나뉜다.

허수경의 시에서 전쟁 이미지와 반전 주제 의식은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만큼 전쟁을 주제로 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다. 전쟁 연구로는 이혜원, 김진선, 황선희의 연구가 있다. 이혜원<sup>5)</sup>은 허수경 시의 전쟁 표상을 통해 반전의식과 생명의식 양

---

3) “다시 아버지 말씀을 드리면 제 아버지가 한 5년간 암 투병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자 아버지를 치료하는 저의 의무로부터 벗어났지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한 허탈감 같은 것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좋아서 한 일이에요. 그 5년 동안 제 아버지이기도 하니까 너무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런데 그때는 방송 일뿐만 아니라 다른 잡지 일들도 돈이 될 만한 일들은 다 하고 살았지요. 글로 돈이 될 만한 일들은 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저를 너무 많이 소모한 것 같은, 그런 허탈감 같은 것이 들면서 한 2년 정도 외국에 가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언어를 접하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시작을 한 거예요.” (「약자에게 아부하는 세상을 꿈꾸는 시인 허수경」,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2011년 2월 8일 방송, <http://m.cbs.co.kr/FM981/board/?type=View&bcd=007c055e&multi=4&num=3377&page=0&pgm=1383>.)

4) ①허수경, 앞의 책, 난다, 2018, 시인소개. ②허수경, 『빛 속에서 이를 수 없는 일은 얼마나 많았던가』, 문학과 지성사, 2023, 시인소개. ③박선주, 「약자에게 아부하는 세상을 꿈꾸는 시인 허수경」, 노컷뉴스, 2011. 참조

5) 이혜원, 「한국 여성시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연구: 고정희, 김승희, 허수경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321-353쪽.

상을 살펴본다. 허수경이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임에 주목하여 허수경 시의 반전의식이 뚜렷한 전쟁표상인 전쟁 피해자들의 훼손된 신체이미지, 생명을 잉태하고 보호하는 여성이 역할과 전쟁의 폭력성의 대립과 장가의 폭력 등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폭력적인 전쟁표상 뿐만 아니라 파괴된 삶의 터전에서 실향민들을 위로하고 살리기 위한 따뜻한 먹거리와 같은 생명의 상징으로 희망을 노래하며 전쟁문학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고 본다. 김진선<sup>6)</sup>의 연구는 허수경의 전쟁시에서 윤리적 주체가 출현하는 과정을 살핀다. 허수경의 초기 시에서 전쟁이 아버지세대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면 중기시에 이르러 시인에게 전쟁은 현재진행형이자 실존적 경험으로 다가오는 점을 포착하여 허수경의 시가 타자의 존재와 자신의 삶의 연관성을 인식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허수경은 전쟁 피해자인 타자들과 마주하며 폭력의 역사를 드러내었고 윤리적 주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황선희<sup>7)</sup>의 연구는 허수경의 시세계에서 초기에서 후기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허수경의 전쟁시가 주체가 서 있는 자리가 타자화된 존재들을 들여다보는 여성 이방인의 자리에 놓이기 때문에 여성주의적 전쟁시에 해당한다고 파악한다.

여성성 연구로는 김순아의 연구가 있다. 김순아<sup>8)</sup>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인 엘렌 식수의 논의를 통해 1990년대 여성시를 고찰한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핵심은 남성의 몸과 구별되는 여성의 몸인데, 이러한 관점에 영향을 받은 여성시는 모든 타자의 말을 여성의 몸과 목소리로 형상화함으로써 한국문학에서 여성시의 발전을 주도했다. 엘렌식수는 글쓰기를 통해 여성 주체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허수경의 시가 자연은 생명을 잉태하고 내보내는 공간(자궁)으로서, 타자를 받아들이는 여성 몸의 포용성을 드러내는 점을 고찰한다.

정동 연구로는 이경수의 연구가 있다. 이경수<sup>9)</sup>는 1980년대 여성시의 특징으로

---

6) 김진선, 「허수경 시에 나타난 윤리적 주체성 연구 - 전쟁 관련 시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65호, 한국현대문학학회, 2021, 259-297쪽.

7) 황선희, 「전쟁과 여성의 아카이브, 허수경의 시세계」, 여성문학연구 5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2, 58-98쪽.

8) 김순아, 「현대 여성시에 나타나는 '몸'의 상상력과 언술 특징 - 이선영, 허수경의 시를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31호,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4, 205-236쪽.

9) 이경수, 「1980년대 여성시의 주체와 정동-최승자, 김혜순, 허수경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37-78쪽.

‘폭력’과 ‘사랑’이라는 주제에 주목하여 최승자, 김혜순, 허수경의 시를 분석한다. 세 시인은 동시대 시인들과 달리 시대의 폭력을 적극적으로 형상화하거나 시대의 폭력에 맞서지는 않았지만 여성의 몸으로 겪은 감정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그려냈으며 자기를 초과해 타자를 발견하고 사랑과 연대와 애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이경수는 허수경의 시집 여섯 권 중 단 한 권만이 1980년대에 발표되었지만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가 1980년대의 역사적 배경과 떼어놓고 읽기 힘든 시집이며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는 여성시사의 맥락에서 고정희의 뒤를 잇는 여성 민중시의 계보에 놓인다고 분류한다. 1980년대 폭력적인 세계에서 허수경은 폭력적 세계를 끌어안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자기 헌신적인 사랑의 태도를 보인다. 이경수는 이러한 시인의 특징을 통해 세 명의 시인이 폭력적인 세계에 온 몸으로 부딪치며 상실된 타자를 자기 안에 품어 안는 애도와 사랑의 다층적인 의미를 발명했음을 고찰한다.

공간 연구로는 김지율, 방승호의 연구가 있다. 김지율<sup>10)</sup>은 허수경 시에 나타난 ‘밭굴의 유적지’와 ‘역’이라는 공간을 헤테로토피아로 보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생태적 상상력을 살핀다. ‘밭굴의 유적지’는 과거의 시간과 문화를 기억하고 있는 헤테로토피아로, ‘역’은 인종, 성별, 계급의 차이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의 연결과 확산이 시작되는 연대의 헤테로토피아로 본다. 더 나아가 허수경의 삶을 생태적 삶으로 보고 모국어로 시를 쓰는 행위를 미학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에서의 생태 위기에 대한 고찰과 시적 대응이라고 본다. 방승호<sup>11)</sup>는 허수경의 시세계의 중심 주제를 파악하는데 공간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을 말하며 허수경 시세계에서 드러나는 ‘고향’, ‘도시’, ‘역’이라는 공간에 주목한다. ‘고향’은 허수경의 자아의식을 지배하는 공간이고 ‘도시’는 상실된 자아의 공허한 내면의식이 투영된 공간이며 ‘역’은 허수경의 자아가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론적 탐색의 공간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허수경 시가 상실의 자아를 구현하고 있음을 포착한다.

이산 연구로는 박은선의 연구가 있다. 박은선<sup>12)</sup>은 허수경 시에 투영된 시적 주

10) 김지율, 「허수경 시에 드러나는 헤테로토피아와 생태적 상상력」, 배달말 69집, 배달말학회, 2021, 437-466쪽.

11) 방승호, 「허수경 시의 공간 양상과 내면의식」, 현대문학이론연구 77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106-129쪽.

12) 박은선, 「허수경 시의 디아스포라 의식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90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22, 119-162쪽.

체의 '떠남'의 욕망과 '귀환' 의지를 고찰함으로써 허수경 시의 미적 특징을 디아스포라적 범주에서 새롭게 제시한다. 박은선은 허수경 시의 디아스포라 의식이 허수경의 시에 대한 미학적 추구와 그 활동을 직접 적은 자전적 기록이라 보고 '시적 주체 = 허수경'임을 토대로 시를 분석한다. 따라서 허수경 시의 이국 언어, 모국어 등의 '언어' 기표들이 디아스포라의 자발적 이주와 이주의 목적의식을 재구성하고 있는 모색의 시학이라고 평가한다. 박은선은 주요 디아스포라 의식이 함축되어 있는 시가 허수경의 유학 이후의 시라고 판단하고 '언어', '공간과 장소', '음식과 허기' 등을 중심 논제로 택해 분석한다.

기억과 시간성 연구로는 방승호와 이지은의 연구가 있다. 방승호<sup>13)</sup>는 허수경 시에 나타난 시간의식을 과거의 기억을 회상함으로써 '절망적'인 시간의 유지로서의 의식과 '순간'에 대한 인식을 통해 나타나는 '허무의식'으로서의 의식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이를 통해 허수경의 자아가 과거에 대한 기억을 회상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순간에 대한 몰입과 집중을 통해 주체의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이지은<sup>14)</sup>은 발터 벤야민의 기억 이론을 통해 허수경의 시의 중요한 주체의식인 '기억'을 분석한다. 또한 허수경의 시에 나타나는 시적 주체와 타자간의 상호주관적 관계를 '애도'의 측면에서 해석하여 모성애로 해석되었던 허수경의 시에서의 사랑의 의미를 새로 부여한다.

주체성 연구로는 유가은의 연구가 있다. 유가은<sup>15)</sup>은 허수경 시에 나타난 '당신'이라는 호칭에 주목함으로써 시적 주체의 형성 과정을 분석한다. 허수경 시에서 주체는 '당신'이라는 호칭을 발화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한다. 따라서 '당신'은 주체에게 있어 존재론적 사유를 발생시키는 문제적 존재로 읽힌다고 본다.

공동체 연구로는 백선율·이경수와 박소영의 연구가 있다. 백선율·이경수<sup>16)</sup>는 허수경 시에 나타난 공동체의 양상에 주목함으로써 허수경 시인의 사유를 살핀다.

---

13) 방승호, 「허수경 시의 시간의식 연구」, 어문연구 99호, 어문연구학회, 2019, 189-211쪽.

14) 이지은, 「허수경 시의 기억 형상화 방식 연구」, 여성문학연구 5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2, 210-224쪽.

15) 유가은, 『허수경 시에 나타난 '당신'의 의미와 주체의 형성』,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16) 백선율·이경수, 「허수경 시의 공동체 의식 연구」, 국제어문 93호, 한국어와문학, 2022, 139-173쪽.

여기서 연구자가 주목한 공동체는 ‘공동체 바깥의 공동체’로 그 공동체 형성의 근원은 ‘슬픔’이다. 또한 허수경의 시에서 공동체의 근본적인 조건이 ‘죽어감’의 체험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죽어감의 공동체’에 주목한다. 더 나아가 비언어적 소리로 연결되는 ‘인간 바깥’의 공동체에 주목하여 허수경의 시가 ‘공동체’에 대해 사유하게 할 뿐 아니라 ‘공동체 바깥의 공동체를 꿈꾸게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박소영<sup>17)</sup>은 리처드 로티의 ‘자유주의 아이러니스트 개념’을 통해 허수경의 시를 살핀다. 자유주의 아이러니스트는 자아 창조를 위해 새로운 메타포를 창안하고자 함과 동시에 타자의 고통에 관심을 지울이고 재서술을 통한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를 의미한다. 허수경 시에서 ‘고아성’ 개념과 ‘연대의식’은 허수경 시인에게서 ‘아이러니스트로서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이다. 따라서 박소영에 따르면 ‘(세계로부터의) 고독’과 ‘(타자와의) 연대’는 허수경의 시를 이끄는 주된 동력이라 할 수 있다.

수사적 방법 연구에는 이은영, 오형엽, 정명환·이경수, 신용목, 김보경·김미라의 연구가 있다. 이은영<sup>18)</sup>은 허수경 시에서 현실을 시에 도입하는 알레고리의 표상들에 주목한다. 알레고리의 표상은 ‘물화된 현실에 대한 풍자적 알레고리’와 ‘동물로 형상화된 자기 정체성의 알레고리’ 그리고 ‘시대를 환기시키는 여성 호명의 알레고리’와 ‘죽음과 폐허의 알레고리’ 양상으로 나타난다. 오형엽<sup>19)</sup>은 허수경의 시 세계를 네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한 시기에 한 가지 측면만 해명하는 것이 아닌 ‘시적 주체’, ‘시적 정동’, ‘시적 기억 및 시간 구조’, ‘시적 인식 및 시선의 측면’에서 각 시기에 시인이 주목했던 양상을 살핀다. 오형엽에 의하면 시적 주체의 측면에서, 시적 정동의 측면에서, 시적 기억 및 시간 구조 측면에서, 시적 인식 및 시선의 측면에서의 양상을 살핀다.<sup>20)</sup> 정명환·이경수<sup>21)</sup>는 제4집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

17) 박소영, 「허수경의 시와 산문에 내포된 고아성과 연대성 연구」, 리터러시 연구 13권 4호, 한국 리터러시 학회, 2022, 453-487쪽.

18) 이은영, 「허수경 시에 나타난 알레고리 양상」, 여성문학연구 45호, 여성문학연구, 2018, 508-535쪽.

19) 오형엽, 「허수경 시의 구조화 원리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81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20, 159-189쪽.

20) 오형엽에 따르면 시적 정동의 측면에서 ‘연민’(제1기)-‘멜랑콜리’(제2기)-‘폭력의 문명사’(제3기)-‘시간의 몽타주’(제4기)로 이동하는 양상을, 시적 기억 및 시간 구조 측면에서 ‘현재적 기억’(제1기)-‘반추적 기억’(제2기)-‘예언적 기억’(제3기)-‘순간적 기억’(제4기)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시적 인식 및 시선의 측면에서 ‘개인적·가족사적 시선’(제1기)-‘사회적·역사적 시선’(제2기)-‘문명사적·신화적 시선’(제3기)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21) 정명환·이경수, 「허수경의 언어공동체 의식과 방언시 작업의 의미」, 우리문학연구 72호,

간』에서의 「진주말로 내말로」 작업에 실린 시인의 방언시 작업을 통해 허수경만의 독창적인 언어 미학을 분석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언시 작업이 “표준어 번역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공동체 및 개별 언어로서의 방언”의 특성을 드러낸다는 점을 고찰한다. 신용목<sup>22)</sup>은 1990년대 한국 여성시에 나타난 ‘액화’ 이미지에 주목하여 김언희, 신현림, 허수경 시에 나타난 ‘몸’의 표상을 중심으로 살핀다. 신용목은 허수경의 시의 ‘몸’과 ‘마음’의 대비에 주목하여 몸의 물리적 변화와 마음의 화학적 변모를 지속적으로 드러내며, 몸의 액화 양상을 마음의 액화 과정으로 설명한다고 정리한다. 또한 이러한 액화 과정을 ‘존재론적 질문’을 숨기지 않고 ‘상처와 상실로 몸을 구성하는 과정’으로 본다. 김보경·김미라<sup>23)</sup>는 허수경 시의 여성주의적 해석을 바탕으로 기존의 다양한 연구에서 해석의 틀로 작용했던 ‘전기적 맥락’에 더하여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하고 시에 드러나는 형식적 특징들도 함께 분석하였다. 특히 진주 방언시 연작을 ‘한국어의 지방화’라고 명명하고 문학어로서의 한국어 및 방언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재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입각점으로 허수경의 시를 고찰한다.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연구로는 2017년에 발표된 이해원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해원<sup>24)</sup>은 1990년대 대표적인 여성 시인인 고정희, 김승희, 허수경의 시에 나타난 시의식과 언술의 특징에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적 요소를 찾아내고 비교한다. 한국의 여성시가 1980년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선진국 여성문학이 겪는 세 단계를 빠르게 통과하여 ‘여성의’ 문학 단계에 도달했음을 고찰하여 허수경이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온 여성 차별의 실상을 서사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살핀다. 이 연구는 허수경의 시에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개념을 처음으로 대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허수경의 시집 여섯 권 중 두 번째 시집과 여섯 번째 시집이 해명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허수경 시인의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에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적 요소가 두드러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두

---

우리문학회, 2021 455-489쪽.

22) 신용목, 「1990년대 한국 여성시에 나타난 ‘액화’ 이미지 연구」, 한국시학연구 64호, 한국어와 문학, 2020, 65-90쪽.

23) 김보경·김미라, 「한국어를 지방화하기-허수경 시의 언어 미학에 관한 시론」, 구보학보 33호, 구보학회, 2023, 379-417쪽.

24) 이해원, 「한국 여성시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연구: 고정희, 김승희, 허수경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321-353쪽.

번째 시집인 『혼자 가는 먼 집』에서 그려지는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인의 발화에서 자본주의 성장중심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희생되는 하위주체의 삶이 재현된다. 자본주의에서 거대 기업의 횡포는 제국주의적 특성을 가지며 이는 신식민주의라 불린다. 따라서 자본주의 아래 개인의 삶을 재현하는 것은 탈식민주의적 태도의 연장선으로 읽을 수 있다. 또한 여섯 번째 시집에 실린 「루마니아어로 욕 언어먹은 날에」를 통해 말을 할 수 없는 하위주체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는 스피박의 주장이 어떻게 시로 그려지는지 포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2장에서는 이전의 연구를 토대로 지금까지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허수경 시 읽기에서 누락된 두 번째 시집과 여섯 번째 시집의 역할을 찾고 더 나아가 3장에서는 하위주체의 발화 자리가 ‘인간’을 넘어 ‘비인간’의 존재론적 지위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논증함으로써 허수경 시 세계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이혜원의 연구 이후에도 이혜순, 이경수, 조연정, 김지율, 강수원 등을 통해 허수경 시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경수<sup>25)</sup>는 허수경 시에서 진주라는 장소성과 ‘어미-여성’으로 표상된 질긴 생명력, ‘아버지-딸’로 이어지는 관계와 역사에 대한 시선, 진주 방언이라는 언어 선택의 문제, 시집 전체를 관통하는 사랑이라는 주제, 슬픔이라는 감정을 다루는 시작 방법과 마음의 용법 등에 주목한다. 무엇보다 허수경의 시를 남성적 시선에 의해 포획된 여성의 자리로 한정해 읽지 않고 남성의 폭력성을 극복하는 대안의 가능성을 허수경의 여성 주체가 품고 있었다는 데 주목하는 것을 볼 때 이경수의 읽기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바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 전쟁, 원폭 투하, 독재 등의 폭력적인 세계에서 허수경의 주체는 자기 헌신적인 사랑의 태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세계 속에서 남성을 폭력적인 세계와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피해자로 여긴다. 이 연구는 허수경의 태도에 주목하여 시 안에서 ‘아버지-딸’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역사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첫 시집인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혜순<sup>26)</sup>은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하위주체의 발화 가능성에 의문을

25) 이경수, 「1980년대 여성시의 주체와 정동-최승자, 김혜순, 허수경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37-78쪽.

26) 이혜순, 「허수경 시에 나타난 ‘슬픔’의 전개 양상 연구 -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를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25호, 국제한인문학회, 2019, 275-310쪽.

던졌던 스피박의 하위주체 개념을 가져와 허수경의 시를 디아스포라 문학으로서 읽어낸다. 무엇보다 이해순은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가 가지고 있는 첫 시집으로서의 의의를 찾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또한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 첫 번째 시집의 “거름”의 근거를 허수경의 “지난한 삶”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첫 번째 시집에서 나타난 슬픔의 양상을 개인, 역사, 공동체의 관점에서 주목하여 살핀다. 여기서 “거름”이 되는 슬픔이란 “주체들의 저항”이며 “세계를 포용하려는 의지의 소망”이다. 이 연구에서는 첫 시집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가 두 번째 시집 『혼자 가는 먼 집』보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며 『혼자 가는 먼 집』이 “개인의 슬픔에 상당부분 지면을 할애하고 있고” 세 번째 시집 『내 영혼은 오래 되었으나』에는 “과거의 시간을 추억하며 그리워하는 상당부분의 시들이 있다”고 해석하여 첫 시집을 이후의 작업과 구분한다. 하지만 두 번째 시집에서 그려지는 “개인의 슬픔”은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라는 정치적 시스템을 향해 달려가는 서울이라는 도시와 한반도의 성장중심주의적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슬픔”으로만 한정 짓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진주에서 서울로의 첫 번째 이주는 시인의 시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 번째 시집이 하위주체의 일상을 통해 역사의 고통을 재현하고 그들을 대변한다면 두 번째 시집의 배경인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하위주체의 일상을 통해 자본주의 이면에서 소외된 하위주체가 겪는 내부적 고통을 재현한다. 이는 자본주의의 그림자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다. 세 번째 시집 또한 “과거의 시간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개인적 슬픔으로 읽히는 시편이 실려 있지만 첫 번째 시집과 비교해서 읽을 때 첫 번째 시집에서 허수경 시인이 (자신이 겪지 않은) 과거의 전쟁을 재현한다면 세 번째 시집에서는 허수경 시인이 동시대의 전쟁을 재현하고 있고 그 전쟁이 시적 화자와 가깝다는 점에서 시인의 시선의 확장이 이루어졌다고 분석할 수 있다.

조연정<sup>27)</sup>은 1990년대 여성문학 담론에서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이 한국 문단의 보편적 문제로 확장되지 않고 문학 내부의 실천이 외부의 현실과 접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허수경의 초기시를 기존의 해석인 ‘위대한 모성성의

---

27) 조연정, 「1990년대 젠더화된 문단에서 페미니즘하기-김정란과 허수경을 읽으며」, 구보학보 27호, 구보학회, 2021, 271-304쪽.

실천'이 아닌 '아버지-딸'의 역전 관계를 통해 읽어낸다. 조연정의 연구는 당대의 비평에서 허수경 시의 중요한 특징으로 거론되어온 “모성애”(모성적 사랑)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sup>28)</sup> 이러한 검토를 통해 조연정은 허수경의 시를 '삶의 고통을 위로하는 포용과 사랑의 힘'으로 읽는 것과 '위대한 모성성'으로 읽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임을 밝히며 후자의 읽기 방식은 여성의 희생이 신비화되고 결국 현실의 여성적 고통들은 대체로 무화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한다. 이를 통해 허수경 시의 새로운 국면을 제기했던 이경수와 이해원의 작업의 연장선에서 조연정은 허수경 시에서 흥미롭게 추출되는 '아버지-딸'의 역전 관계가 젠더 규범을 어떻게 교란시키는지 증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남성 중심적 문단'에서 여성시를 다루면서 간과했던 지점을 짚어내고 허수경에 대한 해석을 현재의 담론에 맞게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강수원<sup>29)</sup>은 허수경 시를 관통하는 주제 의식과 시적 주체와의 연관성을 고찰한다.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적 측면에서 허수경 시에 나타난 식민지와 전쟁 요소가 두드러지는 시에서 드러나는 '여성들의 고통'에 초점을 맞춰 폭력의 현장 속에서 동서고금의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겪어온 수난과 차별, 소외와 배제의 역사를 발견한다. 또한 허수경의 시 세계가 소외되고 배제되는 여성의 실존을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보상과 애도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러한 여성의 실존을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모성성을 지닌 존재'인 여성이 남성을 포용하는 적극적인 여성성을 재현한다고 본다.

김지율<sup>30)</sup>은 허수경 시인의 고향이라는 공간의 변모를 통한 디아스포라적 삶에 주목하여 공간으로서 '고향'을 푸코의 개념인 '헤테로토피아'로 본다. 또한 고향의 변모에 따라 진주, 서울, 독일에서 만나는 못 없고 이름 없는 자들, 즉 서발턴의 특징을 살피고 있다. 김지율의 연구는 허수경의 이향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허수경의 시 세계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허수경 시인이 독일에 정착한 이후 26

28) 이러한 비판적 시선은 조연정 뿐만 아니라 이경수와 이해원이 “허수경 시에 나타나는 사랑의 힘을 ‘모성’이라는 말대신 ‘생명의식’ 혹은 ‘애도의 정동’ 등 다른 개념으로 의미화하려는” 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연정, 같은 글, 291쪽.)

29) 강수원, 『허수경 시 연구-시적 주체와 주제 의식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30) 김지율, 「허수경 시의 '고향'이라는 헤테로토피아의 변모와 서발턴 연구」, 우리말글 93호, 우리말글학회, 2022, 259-292쪽.

년의 시간을 ‘글로벌이라는 새고향’이라는 연대의 공동체로 대변하기엔 허수경 시인의 시집 여섯 권 중 총 네 권이 ‘글로벌이라는 새고향’으로 대변되는 분석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로 묶기엔 너무 긴 시간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허수경 시에 대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측면에서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두 번째 시집과 여섯 번째 시집이 연구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허수경 시인이 타계했던 2018년으로부터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허수경의 시 세계를 하나의 주제로 관통하기에는 다양한 주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허수경 시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과 허수경의 시에서 나타나는 인간-비인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볼 때, 허수경의 두 번째 시집인 『혼자 가는 먼 집』에서의 작업은 시 세계 확장의 첫 번째 지점이다. 따라서 두 번째 시집에서 나타나는 내적 감응을 통한 내부적 고통의 재현을 통해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등한시되어온 두 번째 시집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여섯 번째 시집을 통해 스피박이 주장한 하위주체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시적 발화를 통해 어떻게 재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허수경의 시 세계를 포괄적으로 보는 것은 기후-생태 위기 담론에서 허수경의 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고찰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또한 허수경은 하위주체의 존재론적 범주를 인간에서 비인간까지 확장 시키는데, 이는 허수경 시 세계의 두 번째 확장 지점이다. ‘인류세’는 파울 크뤼천이 제시한 새로운 지질시대 개념이다. ‘인류세’로 인해 인간의 자연을 정복하고자 하는 정체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기후-생태 복합 위기 담론<sup>31)</sup>에서 비인간을 주체의 자리에 놓는 시는 인간의 역사를 의심하고 인간-비인간의 지난한 관계에 대한 회복에 대한 시도로 읽힌다. 그러나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비인간을 하위주체 자리에 놓는 것은 인간의 틀 안에서 비인간을 정의시킨다는 점에서 인간중

---

31) “환경문제를 인권에서도 다뤄야 한다는 담론을 의미한다. “인권과 환경을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한 문제로 보거나, 심지어 이 둘을 상반되는 가치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생태환경과 인권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권, 사회정의, 기후정의, 환경정의, 생태정의는 큰 틀에서 이해해야 하는 개념들이다.” (조효제,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창비, 2022, 19쪽.)

심적이다.

이러한 탈식민주의에 드리워진 인간중심적인 특징의 대안으로 탈식민주의와 생태주의를 결합하는 시도가 제시되었다. 탈식민적 생태학은 인간과 비인간 타자의 ‘관계’에 주목한다. 인간-비인간의 관계는 비정상적으로 파괴적이었다. 또한 제국의 역사에서 비서구인들을 타자화하여 억압하고 지배했던 것이 비서구인들의 문화에 한정되지 않고 “자연의 존재들에 대한 억압과 지배와 훼손”까지 이어졌다.<sup>32)</sup> 그러나 탈식민적 생태학 또한 인간-비인간의 이분법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유라는 점에서 인간중심적인 태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탈식민주의와 생태주의를 결합하려는 시도 외에 생태학적 사유로 ‘객체 지향적 존재론’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객체 지향적 존재론에 영향을 받은 티머시 모턴은 ‘객체로서의 인간’은 비로소 비인간과 ‘공생적 실재’하는 ‘초객체론’을 주장한다. 모턴에 의하면 ‘공생적 실재’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인간에서 벗어나 하나의 종인 ‘인류’로서 발화할 수 있다. 허수경 시인의 시 세계는 비인간을 하위주체로 보고 그들의 위치나 상황을 인간의 관점으로 회복시키는 접근을 넘어 인간을 하나의 종으로 보고 객체의 자리에 놓는다. 이러한 변화 지점은 시 세계의 세 번째 확장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관점 아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논증하게 될 것이다. 우선 2장 1절에서는 기존의 역사에 가려진 여성의 삶을 포착한 허수경의 작업에 주목하고자 한다. 역사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 삶에 주목하는 것은 하위주체로서의 여성을 ‘대변’하는 것이며 그들의 역할을 ‘다시-제시’하는 것이다. 2장 2절에서는 시인의 시 세계에서 첫 번째 이주인 진주에서 서울로의 이주에 주목하고자 한다.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적 주체가 도시의 이면에 드리운 자본주의를 통해 겪는 고통은 2장 1절에서 주목한 고통과 달리 개인 내부의 고통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고통의 내적 감응을 통해 시인의 시선은 확장되는데 이러한 시선의 확장은 이후 시 세계에서 고고학적 이미지와 타국의 전쟁을 재현하는 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3장에서는 허수경의 시에서 하위주체의 존재론적 범주가 인간에서 비인간까지 확장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비인간의 직접적인 발화의 등장은 허수경의

---

32) 이유혁, 「탈식민주의와 생태학의 접점에서 - 이론적 검토와 키키이드의 글들에 대한 생태 비평적 읽기」, 『생태와 대안의 로컬리티』, 소명출판, 2017. 234-237쪽. 참조.

시 세계의 두 번째 확장 지점이다. 3장 1절에서는 탈식민주의 생태학의 관점에서 허수경 시에서 나타나는 하위주체로서 비인간의 발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비인간의 관계의 유기적·수평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탈식민적 생태학은 인간-비인간의 이분법적 관계를 기반으로 인간-비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인간중심적이다. 그러나 허수경 시는 더 나아가 인간을 객체(사물)로서 하나의 종으로 만든다. 3장 2절에서는 허수경의 시적 발화에서 객체로서의 인간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객체로서의 인간은 비인간과 ‘공생적 실재’를 할 수 있는 종으로서의 인간이며 이를 티모시 모턴은 ‘인류’라고 개념화한다. 허수경 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시어 ‘인류’는 티모시 모턴이 비인간화를 극복하면서 제안한 대안 개념으로서의 ‘인류’와 맞닿아 있다. 인간을 주체가 아닌 하나의 종이자 객체로 보는 사유를 통해 인간-비인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허수경 시에 나타난 세 번째 확장이라 할 수 있다.

## 2.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이 연구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허수경 시에 나타난 역사적·동시대적 재현 양상을 살피고 허수경 시 세계의 확장 지점을 찾아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허수경의 시 세계는 세 번의 확장을 이룬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이주’는 허수경 시 세계를 파악하는 데 빠질 수 없었던 요소이다. 진주에서 서울로의 첫 번째 이주에서 허수경의 시 세계는 1차적으로 확장된다. 또 하위주체의 발화가 인간에서 비인간의 존재론적 지위까지 확장된다는 점을 시 세계의 2차적 확장 지점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인간-비인간의 이분법 경계를 해체하고 하나의 종으로서의 인간, 즉 객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시선이 담긴 시는 3차적 확장 지점으로 볼 수 있다.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역사에 깊이 새겨진 제1세계/제3세계, 서구/비서구, 남성/여성으로 나타나는 이분법을 깨뜨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이론으로 영미 페미니즘과 프랑스 페미니즘으로 대표되는 서구 페미니즘을 비판하고 서구 페미니즘 이론에서 소외된 여성들에 주목한다. 여기서 하위주체는 다양한 형태의 여성 뿐만 아니라 아이, 노동자, 유목민 등으로 나타나는데 허수경 시에서 주목할 점은 남성이 절대적으로 가해자의 입장에 서지 않는다는 점이다.<sup>33)</sup>

제국주의는 의식뿐 아니라 무의식까지 장악하는데 이러한 제국주의의 잔여물이 사라지지 않으면 제3세계 여성들은 서구 남성 제국주의자들과 서구 중심 페미니스트들에게 계속 전유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유 속에서 여성이 주체로 서기는 더욱 어렵다. 스피박은 그람시의 하위주체 개념을 가져와 기존의 페미니즘적 관점에

---

33) 허수경의 초기시부터 남성은 오히려 여성이 보호해야 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남성을 절대적 가해자로 그리지 않는 것은 제국주의나 서구 사회의 남성과 달리 허수경 시에서 그려지는 남성 또한 제국주의의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의 역할로 인해 허수경 시에 나타난 여성의 역할을 ‘모성’으로 해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이 허수경 시에 나타나는 사랑의 힘을 ‘모성’이라는 말대신 ‘생명의식’(이혜원, 「한국 여성시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연구: 고정희, 김승희, 허수경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321-353쪽.) 혹은 ‘애도의 정동’(이경수, 「1980년대 여성시의 주체와 정동-최승자, 김혜순, 허수경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37-78쪽.) 등 다른 개념으로 의미화하려는 것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한 결과일 것이다. 허수경의 시에서 이처럼 ‘위대한 모성’이 공통적으로 언급된 이유는 그녀 시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의 혼란 대립이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짐작된다.”(조연정, 「1990년대 젠더화된 문단에서 페미니즘 하기-김정란과 허수경을 읽으며」, 구보학보 27호, 구보학회, 2021, 271-304쪽.)

서 제3세계 여성을 ‘하위주체’로 개념화하여 서구중심 페미니즘이 문화적 차이를 인지하지 않고 주장하는 ‘보편 주장’으로서의 제국주의 잔여물을 제대로 극복하는 지구적 페미니즘을 주장한다. 스피박에 따르면 제1세계 페미니즘이 국가 간 문화적 구별 없이 여성을 자신들의 관점에서 대변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또다시 생성하는 꼴이다. 다시 ‘재현’하는 것은 탈식민주의 관점에서의 중요한 태도이다. 스피박은 “재현에는 정치에서처럼 누군가를 ‘대변’(speaking for)한다는 재현과, 예술이나 철학에서처럼 ‘다시-제시’(re-presentation)한다는 재현이라는 두 의미가 함께 작동한다.”<sup>34)</sup>고 말하는데 허수경 시인은 역사에서 소외된 존재들이나 여성의 일상과 노동을 대변(speaking for)하고 다시-제시(re-presentation)함으로써 역사와 현시대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올린다.

스피박이 제기한 ‘하위주체가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소리로서의 발화의 불가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 속에서 하위주체로서의 여성이 발화하는 정치적 목소리가 목소리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체계 안에서 스피박은 하위주체를 대변하려 하지 말고 말할 수 없는 서발턴들에게 말을 걸어 그들의 목소리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시집인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에서 허수경 시인은 역사의 재현을 통해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소외된 하위주체, 즉 서발턴에 초점을 맞춘다.<sup>35)</sup> 이러한 관점은 허수경의 시 세계 전반에 나타난다. “서발턴이 역사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라면 “여성으로서의 서발턴은 훨씬 더 깊은 그림자 속에 있”<sup>36)</sup>다고 할 수 있다. “가부장제와 제국주의 사이에서, 주체-구성과 대상-형성 사이에서 여성의 형상은 본래의 무가 아니라 폭력적인 왕복 운동 속으로, 전통과 근대화, 문화주의와 발전 사이에 사로잡힌 ‘제3세계 여성’의 전위된 형상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sup>37)</sup> 허수경의 시적 발화를 통한 재현은 “폭력적인 왕복 운동” 속에서

34) 가야트리 스피박 외,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태혜숙 옮김, 그린비, 2013, 61쪽.

35) ①김지율, 「허수경 시의 ‘고향’이라는 헤테로토피아의 변모와 서발턴 연구」, 우리말글 93호, 우리말글학회, 2022, 259-292쪽. ②강수원, 『허수경 시 연구-시적 주체와 주체 의식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③이혜순, 「허수경 시에 나타난 ‘슬픔’의 전개 양상 연구 -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를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25호, 국제한인문학회, 2019, 275-310쪽.

36) 가야트리 스피박 외, 같은 책, 86쪽. 참조.

37) 가야트리 스피박 외, 같은 책, 129-130쪽.

여성의 위치를 다시 재현함으로써 말할 수 없는 하위주체를 대신하여 그들을 ‘대변’ (speaking for)함으로써 그들의 위치와 역할의 의미를 ‘다시-제시’(re-presentation)한다.

2장 ‘재현되지 않은 역사의 재현’에서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관점과 스피박의 하위주체 개념을 통해 허수경 시에 나타난 말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인 하위주체와 ‘하위주체로서의 여성’의 삶에 주목하여 시인의 시적 발화에서 하위주체의 노동에 어떤 가치가 부여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문학 읽기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영역”의 범주들이 “우리 자신과 세계에 대한 체험 안에서 어떻게 분리 불가능한 양상으로서 존재하는지 직접적으로”<sup>38)</sup> 파악하는 방법이다. 허수경이 주목하는 하위주체는 제국주의나 신식민주의 혹은 가부장제로 인해 소외되어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실상 제국이나 거대 기업이나 남성은 여성으로서의 하위주체의 노동 위에서 있다. 따라서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허수경 시에 나타난 하위주체로서의 여성의 노동과 일상을 읽는 것은 개인과 세계의 분리 불가능한 존재 양상을 인지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2장 1절 ‘하위주체로서의 여성’에서는 시인이자 딸로 그려지는 여성 주체로의 발화로 재현되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먼 그림자 끌고」,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가 겪은 식민지, 전쟁, 독재로 인한 역사의 재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시인은 ‘여성의 노동’에 주목하는데 여성의 삶을 통해 재현되는 가사노동이 남성들의 세계였던 외부 세계와 무관하지 않은 노동이라는 시적 발화를 통해 역사 속에서 여성이 설 자리가 삭제되었던 이분법적 사고의 허물기로서의 재현을 보인다. 더 나아가 2장 2절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신적 난민’으로서의 개인’에서는 시인의 진주에서 서울로의 이주가 갖는 시 세계 확장 지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확장 지점이 이후 고고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허수경 시인은 식민지, 전쟁, 독재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태어나 여성으로 살아왔다. 대학 졸업 후 이주할 거듭한 시인의 이력은 많은 연구에서 시인의 시를 해석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본고에서도 허수경 시인의 “고향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독일로 발굴을 하느라 시리아와 터키로”<sup>39)</sup>의 이동은 중요한 변화 지점

38) 로이스 타이슨, 『비평 이론의 모든 것』, 윤동구 옮김, 엘피, 2012, 859쪽.

39) 허수경, 『내 영혼은 오래 되었으나』, 창비, 2001, 시인의 말.

이자 시 세계의 확장 지점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탈식민주의는 식민지 세계와 신식민지 세계가 형성되는 데 배경이 되는 생태적 요인과 생태적 비인간 존재들이 겪는 불평등과 희생을 외면하였다. 이후 이러한 탈식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탈식민주의와 생태주의를 연결하려는 시도를 통해 ‘탈식민적 생태비평’(postcolonial eco-criticism)이 등장하였다. 이유혁<sup>40)</sup>의 설명에 따르면, ‘탈식민적 생태비평’은 인간-비인간 사이의 지배-피지배적인 관계의 비정상성과 이것의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다른 방식의 관계 맺기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유이다. 탈식민주의가 피식민을 인간에 한정지었다면 탈식민주의 생태비평은 억압당하고 희생당하는 피식민의 존재를 인간에서 비인간까지 확장한다는 점에서 탈식민주의의 확장된 사유이며 비인간의 현실을 고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허수경 시에서 비인간 동물의 직접적인 발화가 등장하는 시편들은 탈식민적 생태비평의 관점에서의 시적 발화로 볼 수 있다. 가령 본문에서 살펴볼 「카라쿨양의 에세이」는 비인간 양의 직접적인 발화로 전개되는 시이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비인간 양이 직접 자신의 삶을 발화한다. 이러한 시적 발화는 탈식민적 생태학이 주장하는 인간-비인간의 관계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탈식민적 생태학은 여전히 제1세계와 제3세계의 이분법을 기반으로 한 사유라는 점에서 인간중심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희생당하는 피식민지 자연과 동물들의 문제적 현실을 고발하지만 더 나아가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탈식민주의 관점에서의 생태적 사유가 이러한 과정을 지나올 때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실재론이 등장한다.

티머시 모턴<sup>41)</sup>은 이분법적 경계에 근거한 생태학을 인간중심적이라 비판하고 이분법이 기존의 ‘공생적 실재’의 단절이라고 규정지으며 인간을 객체적 존재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급진적 생태학은 인간을 포함한 객체들이 그물망처럼 상호 연결된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본다. 모턴은 이러한 상호 연결성을 ‘유령성’(spectrality)이

---

40) 이유혁, 「탈식민주의와 생태학의 접점에서 - 이론적 검토와 킨케이드의 글들에 대한 생태비평적 읽기」, 『생태와 대안의 로컬리티』, 소명출판, 2017.

41) 티머시 모턴은 영문학자이자 생태이론가이다. 그는 기존의 생태학적 사유와 이론들이 인간과의 대립 속에서 구축된 ‘자연 개념’에 근거하여 세워졌으며 그러한 사유와 이론이 ‘자연 없는 생태학’에 불과하며 인간중심주의적 사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기존 생태학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으로 영미 비평계에 이름을 알렸다.

라 개념화했다.<sup>42)</sup> 모턴의 관점에서 나 자신은 다른 존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존재자들은 ‘유령들에 대한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유령성을 인정하는 것은 ‘생태학적 인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을 둘러싼 혹은 자신에게 스며들어 있는 다른 존재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려는 것은 “인간 중심주의적 광기”<sup>43)</sup>이며 모턴은 초객체론을 통해 인간중심주의적 광기를 중지시킨다.<sup>44)</sup>

객체 지향적 존재론에 영향을 받은 티머시 모턴은 『인류: 비인간들과의 연대』에서 비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까지 모두 객체이며 인간-비인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공생적 실재’(the symbiotic)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생적 실재’는 현실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모턴은 실재와 현실에 대한 라캉의 구분에 의지하여 ‘공생적 실재’를 개념화한다. ‘현실’이 인간과 관련된 세계라면 ‘실재’는 생물권의 인간적 부분과 비인간적 부분 간의 생태학적 공생으로 규정된다. 인간-비인간의 공생적 실재, 즉 ‘연대’는 “지배적인 존재론적 경향을 차단”한다. 지배적인 존재론적 경향은 “공생적 실재에 대한” ‘배제( foreclosure )’<sup>45)</sup> 이후로 바탕인 것이 되었다. 이를 티모시 모턴은 ‘단절’(severing)이라 부른다. 이러한 ‘단절’로 인해 존재자들은 공생적 실재를 망각하게 되었다. 라캉의 구분에서 보자면 ‘현실’은 공생적 실재가 배제된 인간과 관련된 세계이자 인간만이 관련된 세계라면 ‘실재’는 인간-비인간이 생태학적으로 ‘공생적 실재’하는 세계이다. ‘단절’의 세계에서 ‘전체’는 그 ‘부분의 합’보다 더 크며 이는 “농업 시대 일신론의 징후이다.”<sup>46)</sup> ‘단절’의 세계에서 존재자들은 ‘초

42) “생태학은 우리에게 모든 존재자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생태학적 사고는 상호 연결성에 대한 사유이다. 생태학적 사고는 생태학에 대한 사고이면서 생태학적인 사유이기도 하다. 생태학적 사고를 사유하는 것은 생태학적 기획의 일부이다. 생태학적 사고는 단순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자들이 다른 존재자들, 즉 동물이나 식물 혹은 광물질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완벽하게 의식해가는 실천이자 과정이다.”, Timothy Morton, *The Ecological Though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p.7, 김용규 번역.

43) “인종차별의 산물들은 비인간적인 유령이 어른거리지 않는 ‘건강한 인간 존재자’를 구성하려는 시도이다”, 같은 책, 137쪽.

44) 같은 책, 114쪽. 참조.

45) 배제는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이 도입한 용어”로, “프랑스어 포르클뤼지옹(*forclusion*)의 번역어이다. 라캉은 이것은 프로이트가 정신병에 관한 논의에서 사용한 페어페르퐁(*Verwerfung*; 거부)과 대등한 말로 썼다. 라캉의 이론에서 배제는 정신병에 특유한 방어 기제로, 거세 콤플렉스(CASTRATION COMPLEX)의 기표로서의 팔루스(PHALLUS)를,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현실의 전 영역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다.” (조셉 칠더스·게리 헨치, 『현대문학 문화비평 용어사전』 황중연 옮김, 문학동네, 1999, 191-192쪽.)

월'적 존재를 향해 나아간다면 '연대'의 세계, 즉 공생적 실재로 나아가는 세계에서 '저월'적 전체를 형성한다. 이러한 세계에서 "인간은 하나의 종으로서, 다시 말해, 그것의 (인간적, 박테리아적, 미생물적, 보철적) 부분들의 합보다 기이하게도 훨씬 더 작은 전체로서 가시화된다."<sup>47)</sup>

기존의 연대에 대한 사유는 비인간을 인간의 존재론적 지위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와 달리 모턴이 정의한 연대는 인류에게 "바탕적"이고 "근본적"이며 "자동적"인 것이다.<sup>48)</sup> 이러한 모턴의 관점에서 이분법을 해체하지 않고 인간-비인간의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회복하려는 인간의 모든 움직임은 단절은 그대로 둔 채 비인간을 인간의 지위까지 올리는 행위이며 이는 결국 인간중심적이다. 무엇보다 자본주의는 "충분히 유령적이지 않다. 자본주의는 사물의 존재를 사물의 외양과 명확하게 구분짓고, 사물에게서 힘을 빼앗고 사물을 탈신비화하며 사물로부터 성질들을 박탈하고 그 데이터를 지워버리는 실체적 존재론을 함축한다."<sup>49)</sup> 따라서 모턴에게 자본주의는 생태학적 사유에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 도시에서 나는 혼자 걸어다니는 이방인이었다. 오랫동안 몸 없는 유령이라는 생각도 들었다.”<sup>50)</sup>

허수경 시인의 고백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방인'으로서의 존재성을 '유령'이라고 표현한다.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이중의식은 모턴이 말하는 상호 연결성으로서의 '유령성'과 연결된다. '이방인'일 때 비로소 나 자신은 자신이 자신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태학적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이방인으로 살았던 허수경 시인은 자신의 존재가 자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점은 비인간의 직접적인 발화를 시에 가져오는 것을 넘어 인간을 하나의 종으로서 보고 하나의 인간이 인간 그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발화되는 시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46) 티모시 모턴, 『인류』, 김용규 옮김,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63쪽.

47) 같은 책, 180쪽.

48) 같은 책, 41쪽. 참고.

49) 같은 책, 107쪽.

50) 허수경, 「어느 우연의 도시 어느 우연의 시인-어느 우연의 도시로 어느 우연의 시인에게로」, 『너 없이 걸었다』, 난다, 2015, 23쪽.

이와 관련하여 모턴은 인류(humankind)와 인간(humanity)를 구분한다. 모턴이 말하는 인류(humankind)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부정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현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감수성을 가진 내파적 전체”이다. 이러한 인류의 특징은 “구체적 특수성 때문에 인간의 주위를 맴도는 후광처럼 유령적으로 떠돈다”<sup>51)</sup>는 것이다. 이와 달리 인간(humanity)은 공생적 실재를 망각한 존재이다. 흥미로운 것은 모턴에게 ‘인류세’란 인간이 ‘인류세’를 통해 사유함으로써 “깨어지기 쉽고 비밀관적인 저월적 과잉객체로서의 종-개념”<sup>52)</sup>을 보게 되는 계기로서의 패러다임이다. 따라서 모턴의 주장은 문제성을 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문제성은 시작일 뿐 앞으로 인간이라는 종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하나의 대안으로서 작동한다.

앞서 제시한 생태학적 사유의 두 가지 이론을 통해 허수경 시에 나타난 인간-비인간 관계와 관계의 변화 지점을 포착해 보고자 한다. 3장 1절 ‘하위주체로서의 비인간’에서는 허수경의 시에 나타나는 비인간의 직접적인 발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인간-비인간의 유기적·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는 탈식민주의 생태학의 관점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3장 2절에서는 티모시 모턴의 초객체론을 통해 시적 발화에서 드러나는 ‘공생적 실재’하는 인간-비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허수경의 시가 역사적-동시대적 과제인 기후-복합 위기 시대에 인간이 자신을 ‘인간이라는 종’, 즉 객체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시적 발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의 재현’과 ‘지구적 관계’를 중심으로 허수경 시 세계의 변화 과정을 통해 시인의 시에 나타난 시간의 층위가 역사의 재현에 머무르지 않고 기후-생태 복합 위기 시대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1) 같은 책, 160쪽.

52) 같은 책, 180쪽.

## II. 재현되지 않은 역사의 재현

### 2.1 하위주체로서의 여성

한반도는 1945년, 일본의 2차세계대전 패배와 동시에 일본으로부터 해방했다. 하지만 해방으로 인한 감격도 잠시, 한국의 주권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강대국들에 의해서 논의되었다.”<sup>53)</sup> 이로 인해 일본의 한국 영토에서의 철수 후 한국이 주권을 갖기도 전에 강대국들에 의해 한국은 또 다른 지배 이데올로기에 갇히게 된다. 이후 1950년, 정치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발발한 6·25전쟁은 단일국가로 독립하지 못한 한국에 또 다른 상처를 안겨주었다. 전쟁이 남긴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독재로 상처에 또 다른 상처를 입히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또한 독재가 해결되기도 전인 1960~80년대 서울은 고도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만 이는 성장제일주의로 치달아 ‘근대화 지상주의’를 낳았다. 분배가 고려되지 않은 성장으로 인한 근대화 지상주의 세상에서 노동자는 철저히 소외당했다.<sup>54)</sup> 이러한 산업화 발달에 따라 여성의 사회활동도 늘어났으나 여성 노동자의 권리나 대우는 지위 향상 이전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빼앗김만이 넉넉”(「그믐밤」)한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재현’은 탈식민주의 관점에서의 중요한 태도이다. 가야트리 스피박은 “재현에는 정치에서처럼 누군가를 ‘대변’(speaking for)한다는 재현과, 예술이나 철학에서처럼 ‘다시-제시’(re-presentation)한다는 재현이라는 두 의미가 함께 작동한다.”<sup>55)</sup>고 말했다. 허수경 시인은 스피박의 재현의 관점을 시적 발화를 통해 실현한다. 그녀는 시적 발화를 통해 역사 안에서 소외되었던 하위주체의 일상을 다시-제시(re-presentation)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speaking for)함으로써 그들에게 말을 건다. ‘이주’를 반복하며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아온 허수경 시인이 재현하는 하위주체

---

53) 서중석, 『한국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2013, 31쪽. “1943년 11, 12월에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개석은 이집트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을 적당할 시기에 독립시킨다는 데 합의했다. 문제는 ‘적당한 시기’였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한국을 수십 년간 식탁통치한 다음에 독립시켜야 할 것이라고 구상하고 있었다. 카이로 회담 중에 루즈벨트는 이란의 테헤란으로 가서 소련의 스탈린 소련공산당 서기장과 만나 한국은 약 40년간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4) 같은 책, 371쪽 참조

55) 가야트리 스피박 외,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태혜숙 옮김, 그린비, 2013, 61쪽.

의 존재론적 범주는 그녀의 삶에 따라 확장된다.

허수경 시에서 한반도의 상처는 세대 간의 상처로 읽히지만 한 세대의 상처는 그 세대만의 것만이라고 할 수 없다. “대물림 되지 않는 것 없”(「남강시편 4」)는 한반도에서 한 세대의 상처는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 쌓이고 쌓여 현재의 ‘나’에게로 귀결된다. 허수경의 시에서 “그림자”는 대물림된 상처의 비유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특히 허수경의 초기 시 배경은 한반도 역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허수경 시인은 하위주체들의 일상을 통해 역사의 이면을 드러낸다. 여섯 권의 시집 중 유일하게 1980년대에 발표된 첫 시집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는 크게 네 편의 연작시<sup>56)</sup>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한반도 역사의 상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먼저 살펴볼 「먼 그림자 끌고」는 일제 시대를 살아온 “아버지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일상이 손녀이자 딸인 ‘나’의 시선으로 재현되는 시다.

아버지의 아버지는 아버지를 데리고 보통학교 오학년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다 소화 15년

이승토록 이마에 꽃불을 인 봄은  
드문새 드문새 저물어간다

석탄차는 신작로 따라 더디게  
아버지는 아들보다 더디게  
집으로 돌아온다 소화 15년

---

56) 1988년에 발간된 허수경 시인의 첫 시집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는 연작시 「원폭수첩」, 「남강시편」, 「조선식 회상」,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 사는가」와 다수의 시로 이루어져 있다. 연작시 「원폭수첩」에서 시인은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조선 백성들의 상처를 그려낸다. 일제강점기 시절, 히로시마에 끌려가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조선 백성들은 피식민지 백성으로서 제국 본토에서 완전한 타자였다. 원폭의 피해를 입은 백성들은 타자라는 이유로 보상도 치유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방사능에 노출된 여성의 몸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거나 잉태하더라도 자식까지 방사능 피해의 “노역” 속에서 살게 해야 했다. 「남강시편」에서 “남강”은 허수경 시인이 나고 자라온 진주에 있는 강이다. 연작시 「남강시편」 “조선땅”(「남강시편 4」)에 대한 시다. “개화기 이후”(「남강시편 3」) “싸움 많아 고된 땅”(「남강시편 2」), “굶은 산맥”(「남강시편 3」)들로 은유된 한반도의 역사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근대화에 밀려 윗대 어른 누운 터도 건사 못하”고 “도시 변두리에 살고 있”(「남강시편 5」)는 하위주체들에 주목한다. 「조선식 회상」과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 사는가」는 식민지와 전쟁과 독재, 그리고 근대화로 이어지는 역사를 “아버지의 아버지”-“아버지”-“나”의 관계 속에서 그려내고 있다.

데워진 청주로 스며드는 봄밤이 눈가에 차이니  
아버지의 아버지  
청춘이 봄이 가고 있는가

엄부된 마음자리는 작은이의 뒤태조차 다스려  
사뭇 솟기가 덕석물이 깎 짚풀 같으니  
이놈의 암상을 종이 어디다 버리랴

아버지의 아버지는  
젓은 눈으로 아들을 본다

무엇도 예감할 수 없는  
대처의 어두운 소문 곁으로

진달래 꽃뺨 이울드끼 컷불이 밝은 보통학교 오학년 학동  
돌아갈 집보다 더 멀기만 한 시대 소화 15년

- 「먼 그림자 끌고」 전문

「먼 그림자 끌고」는 “아버지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일상을 통해 피식민지 백성인 하위주체에 주목한다. 시의 배경은 “소화 15년”, 현재 표기법으로 1940년이다. 1940년은 한반도가 일제 치하에 있던 ‘식민지 시절’이었다. 해방을 5년 앞둔 시점이지만 전쟁을 준비하는 일제의 무력은 더욱 폭력적이었고 한반도의 날짜 표기 방법이 아닌 일왕을 기준으로 세운 날짜 표기를 한반도에서 적용한 것은 창씨개명과 같은 일본의 한반도를 향한 점령이자 주권약탈이었다. 시적 주체는 “소화 15년”이라는 시기를 1연과 3연에서 두 번이나 언급함으로써 식민지 시절로 그려지는 시적 배경을 강조하고 있다.

3연 2~3행의 “아버지는 아들보다 더디게/ 집에 돌아온다”는 대목을 통해 “아버지의 아버지”가 아들인 “아버지”의 뒤에서 걷고 있는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아버지의 아버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놈의 암상을 종이 어디다 버리랴”라며 걱정한다. 여기서 “암상”은 ‘어두운 형상’을 의미하는데 아들인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볼 수 있는 ‘어두운 형상’은 ‘그림자’로 추측된다. “아버지의 아버지”의 위치는 “아버지”의 위치보다 뒤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림자의 위치와 “아버지의 아버지”의 위치는 동일하다. 이때 그림자는 “아버지”의 앞 세대인 “아버지의 아버지”의 시간, 즉 “아버지의 아버지”가 살아온 시대인, 식민지 시대로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그림자는 앞 세대가 겪은 고통이자 역사를 대변하는 이미지이다.

“암상”이 그림자를 의미하고 그림자가 식민지 시대를 의미한다면, 시에서 “아버지의 아버지”가 아들을 보며 아들의 “뒤태”와 “숫기”와 “암상”을 걱정하는 것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식민지 땅에서 살아가야 할 아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볼 수 있다. “돌아갈 집보다 더 멀기만 한 시대”였던 1940년, “아버지의 아버지”는 해방이 될 거라는 꿈도 꾸지 못한 채 일본이라는 식민지의 그림자를 끌고 살아가야 할 아들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이 시에서 “그림자”는 개인이 처한 시대의 현실을 의미하지만 이는 더 나아가 개인이 서 있는 땅의 역사이자 인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에서 “아버지의 아버지”는 피식민 백성으로서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아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이다. 더 나아가 내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점에서 ‘나’의 그림자는 “아버지의 아버지”와 “아버지”가 겪어온 시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를 통해 ‘나’는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식민지와 전쟁을 겪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의 삶을 재현하는 발화 주체이다. 시적 주체인 ‘나’의 발화를 통해 기존의 역사는 새롭게 ‘재현’된다. 여기서 ‘새로움’이란 없던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재현되지 않았던 역사의 출몰이다. ‘나’는 시적 발화를 통해 역사에서 소외된 “아버지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일상을 재현함으로써 식민지 시절, 피식민지인으로서의 한반도 백성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 또한 ‘내’가 남성인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의 일상을 재현하는 것은 남성의 언어로 기록된 역사에 반하는 일이며 남성-여성으로 나뉘는 이분법의 경계를 허무는 발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자연법을 만들고 저들이 실정법을 만들었습니다 무죄 증명이며 풀대처럼 흔하게 살아오면서 개화기 이후 이 나라에 살아오면서 그 어느 누구의 신민도 아니요 그저 착한 아들딸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 구

「항소이유서」는 식민 종속국에 속한 백성의 발화로 진행되는 짧은 시이다. 시적 주체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혹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시적 주체의 발화는 식민 종속국 “백성”을 대변하는 존재로 보인다. 식민 종주국은 자신을 “올바른 ‘자아’가 구현된 존재라고 보았다.”<sup>57)</sup> 반면에 식민 종속국 사람들을 자신과 다른 존재로 보고 “온전한 인간 존재가 되기에는 부족한 대상으로 판단”하여 타자화(othering)했다. 타자화는 세계를 이분법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며 인간을 문명인과 야만인으로 나눈다. 야만인은 근대화되지 않아 부족한 존재로 여겨지거나 자연과 가깝다는 이유로 ‘원시적인’ 아름다움이나 고결함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도 야만인은 타자로 남아 온전한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항소이유서」에서 화자는 “자연법을” 만든 “우리” 중 하나이다. 실정법 속에서 “저들”은 “우리”를 “그저 착한 아들딸”이 아닌 “신민”으로 만들려고 한다. 화자가 속한 “우리”는 “신민”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그저 사람이자 “아들딸”이다. “저들”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그 “자유”는 “구린내 나는 자유”일 뿐이다. “저들”이 “우리”를 “신민”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를 자신들과 똑같은 존재로 보는 시선이 아닌 자신들 보다 ‘자아’가 구현되지 않은 부족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며 이는 ‘타자화’에 해당한다. ‘항소이유서’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화자는 피식민 국가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한다.

한반도의 역사를 토대로 볼 때, “우리”가 한반도 백성이라면 “저들”은 일제로 읽힌다. “우리”가 법을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나누는 것은 “저들”이 “우리”를 타자화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우리”는 “저들”이 만든 “실정법”을 인정하지만 “저들”은 “우리”의 “자연법”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호소하는 이분법은 “저들”로 표현되는 일제의 틀, “구린내 나는 자유”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로 보인다. 허수경의 시에서 하위주체들은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삶을 한탄할 뿐(“식민지 백성으로 돌아오지 않으리”<sup>58)</sup>) “저들”의 “구린내 나는 자유”로부터 벗어나려는 적극적으로

57) 로이스 타이슨, 『비평 이론의 모든 것』, 윤동구 옮김, 엘피, 2012, 864쪽.

58) 「원폭수첩 1」,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실천문학사, 1988, 49쪽.

로 시도하지 않는다. 허수경 시인의 재현은 현실적인 재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식민 종속국의 백성은 말을 해도 목소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하위주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수경 시인은 시를 통해 현실 이상의 것을 시도한다. 「항소이유서」에서 화자인 타자화를 당한 식민 종속국의 “백성”은 하위주체이지만 목소리를 낸다. 허수경은 시적 발화를 통해 하위주체에 목소리를 부여함으로써 혹은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저들”로 그려지는 일체가 어떻게 한반도 백성을 타자화했는지 다시-제시한다. 재현을 통해 의식과 무의식에 심어진 잘못된 인식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식민주의로부터 벗어나려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허수경의 시편에는 피식민지 하위주체들의 일상에 주목한 시가 다수 실려 있다. 이후 시 세계 확장을 거친 시인은 그들의 일상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시적 발화는 「루마니아어로 욕 얻어먹은 날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폭탄이 떨어지기 직전의 바그다드, 솔 라투어라는 한 나이 든 독일 기자가 어눌하게 전했던 그때 바그다드에는 유별나게 결혼식이 많았다고 한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꽃 같은 신부들이 신랑과 함께 춤을 추고 그들의 부모들이 거나한 음식 앞에서 박수를 치고 아이들은 꽃을 뿌렸다고 한다. 무엇이 그들을 결혼식으로 몰았던가, 거대한 죽음의 물결 앞에 선 자연재해자들처럼)

- 「우물에」 부분

전쟁은 국가와 국가 혹은 이념과 이념 간의 싸움이다. 전쟁은 개인의 문제로 발발하지 않는다. 특히 이라크전쟁은 제국과 제국 혹은 이념과 이념의 전쟁이 아닌, 미국과 영국이라는 제국의 횡포로 시작된 전쟁이다. 「우물에」는 전쟁과 일상의 대비를 그려냄으로써 전쟁의 폭력성을 두드러지게 표현한 시이다. 2003년 3월 20일, 미국은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에 폭탄을 떨어뜨렸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 작전명은 ‘Freedom of Iraq’, 즉 ‘이라크의 자유’였다. 미국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했으며 영국과 연합하여 이라크를 공격했다. 미국의 압도적인 공격으로 이라크군은 무력화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이 저지른 행동의 정당성을

심판대 위에 올리게 했다. ‘자유’를 앞세웠던 미국의 “속셈은 자국의 이득을 추구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다른 나라의 체제를 개조하려는 데 있”<sup>59)</sup>었다. 이러한 미국과 영국의 행보는 “영토와 자원 및 시장을 점유하여 상업적 이득을 추구하는 제국주의의 본질과 통한다.”<sup>60)</sup> 미국의 욕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무고한 이라크 사람들은 8년 동안 전쟁 속에서 살아야 했다. 겉으로는 ‘이라크의 자유’를 위한, 실상은 이라크의 자원을 노린 미국의 횡포는 “자본주의 성장과 더불어 원료와 시장 확보”<sup>61)</sup>의 필요로 식민지 건설을 시작한 영국의 ‘고전적 제국주의’와 “자신의 우월성”을 부각시키고 동시에 타국의 “후진성”<sup>62)</sup>을 부각시켰던 ‘일본의 제국주의’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욕망은 어떤 타인의 생명보다 중요”<sup>63)</sup>한 것이다.

시 「우물에」는 전쟁이 시작되는 날이 배경이다. “그때 바그다드에는 유별나게 결혼식이 많았다고 한다”는 대목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 중에서도 “결혼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면모를 두드러지게 보이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라크전쟁에서 미국은 무고한 일반인들을 자신들의 욕심으로 전쟁 속으로 가뒤퍼렸다. 그들은 제국이 식민 종속국을 타자화했던 것처럼 인간이 인간에게 의도적으로 “재해”를 입힌 것과 다름없다. 이후 나오는 결혼식을 묘사하는 대목은 “폭탄이 떨어지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더 아름답고 처절하게 그려진다. “전쟁”과 “결혼식”의 대비로 이 시는 제국주의로서의 미국의 폭력성을 선명하게 폭로한다. 허수경 시인이 생각하는 시의 역할은 네 번째 시집인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의 뒤표지에 실린 짧은 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나는 나를 부리고 간 말들이 이를테면 2003년 가을 어느 날, 경찰이 되어 어린 딸아이와 늙은 어미를 먹이기 위해 검문소 앞에 줄을 서 있다  
폭탄 테러를 당해서 죽은 한 이라크인을 위해 있었으면 했다. 말로 평화를 이루지 못한 좌절의 경험이 이 현대사에는 얼마든지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거대정치이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여, 말이 그

59)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 푸코, 파농, 사이드, 바바, 스피박』, 살림, 2006, 28쪽.

60) 같은 책, 28쪽.

61) 같은 책, 26쪽.

62) 같은 책, 24쪽.

63) 허수경, 『나는 발굴지에 있었다』, 난다, 2018, 19쪽.

대를 불러 평화하기를, 그리고 그 평화 앞에서 사람이라는 인종이 제 종을 얼마든지 살해할 수 있는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라는 종은 ‘살기/살아남기’의 당위를 자연 앞에서 상실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비관적인 세계 전망 끝에 도사리고 있는 나지막한 희망 그 희망을 그대에게 보낸다.”<sup>64)</sup>

이 글에서 허수경 시인은 자신을 “부리고 간 말들이” 미국이라는 제국의 욕심으로 발발한 전쟁의 시작이었던 “폭탄 테러를 당해서 죽은 이라크인”을 위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또한 말이 “거대정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불러 “평화하기를”, “사람”이라는 종이 “얼마든지 살해할 수 있는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다. 허수경 시인은 전쟁에 대해 반전의식이 확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론에서 언급했지만, 스피박은 ‘재현’의 의미를 ‘대변’으로서의 재현과 ‘다시-제시’로서의 재현으로 구분한다.<sup>65)</sup> 허수경에게 “말”, 즉 시는 이라크전쟁의 발발로 바그다드에 폭탄이 떨어질 때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무고한 사람들에 주목하고 그들을 ‘대변’(speaking for)함으로써 그들을 “위해 있다.” 또한 “거대정치”와 “거대정치를 앞세워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 “평화”와 “기억”을 바라며 앞으로 “사람”이라는 종이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제시’(re-presentation)한다. 허수경의 시는 2003년의 이라크전쟁을 그리지만 “거대정치”로 인한 전쟁을 겪은 인간은 그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허수경 시인에게 전쟁은 “인간이 제 종을 살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시인이 전쟁을 겪지 않았더라도 전쟁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다. 전쟁을 겪지 않은 첫 번째 세대이지만 6·25전쟁이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마무리되는 바람에 남한 사회의 1960년대는 전쟁이 끝났다는 안도보다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더 큰 시절이었다. 불안이 장악한 분위기 속에서 시인의 세대가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것은 맞지만 전쟁의 고통에 버금가는 불안이 한반도에, 특히 전쟁을 겪지 않은 첫 세대에 드리우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거대정치”가 사라지지 않는 한 모든 인간은 역사의 전쟁으로부터, 진행 중인 전쟁으로부터, 이후 발생할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허수경의 이러한 메시지는 “거대정치”가

64) 허수경,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문학과 지성사, 2005, 뒤표지 글.

65) 가야트리 스피박 외,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태혜숙 옮김, 그린비, 2013, 61쪽.

끝나지 않은 이상 유의미하다. 재현을 통해 기억하는 것, 그럼으로 인간이라는 종이 지나온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허수경이 가지고 있는 시의 힘이다. 인간이 “제 종을 얼마든지 살해할 수 있는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한 허수경의 시의 의의는 사라지지 않는다.

가)

귀갓길 골목에서 아버지를 만난다  
나도 아버지도 술에 취해 있다

아버지 미국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요  
애야 월급을 다 못 타왔다

아버지 군부독재가 우리의 먹을 양식을 빼앗아가요  
애야 너의 어머니 관절염은 어찌지

아버지 분노가 눈 앞을 막아요  
그들이 몰려와 동료들을 개처럼 끌고 갔어요  
애야 술한 동료들이 사라져간다  
나는 쓸쓸하다 다만  
무력할 뿐 무력한 세계에서  
건강할 뿐

대문을 연다  
다녀왔습니다

골목길에 그림자를 남겨두고  
아버지는 장년의 그림자를  
나는 청년의 그림자를

그리하여 우리는 불안하다  
집으로 돌아왔음에도 자꾸

나)

-당신과 딸한테는 언제나 최루탄 냄새가 나오 최루탄 냄새를 거두어 빨래를 하고 나면 행굼물 속에는 나의 눈물이 침병거리려 오 오 제발 밥상에는 시대의 뒷모습아 제발 우리의 양식으로 들어오지 말게 우리의 반찬양념으로 달라붙지 말게 그리고 안녕히. 대문 밖에서 안녕히. 건강하게.

-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 사는가 4」 부분

연작시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 사는가」에서 시인은 한 지붕 아래 사는 아버지와 나,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다. 「조선식 회상 9」에서 그려진 세 청년들 중 다른 청년들과 달리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일상을 살아내지만 일상 속에도 한 반도의 정치적 문제는 스며들어 있다. 가)는 장년인 아버지와 청년인 나의 발화로 이루어져 있다. 1연의 2행 “나도 아버지도 술에 취해 있다”는 대목에서 허수경 시에 나타나는 ‘술’의 특징을 떠올릴 수 있다. 허수경의 시에서 ‘술’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세계를 재현시키는 장치이다. 이러한 장치로서의 ‘술’은 2.2장에서 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다시 본문의 시로 돌아와 “나”와 “아버지”가 취해 있는 것은 그들이 처한 현실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청년”인 나와 “장년”인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각자 자신들의 걱정을 늘어놓는다. 순서를 주고 받으며 말을 할 뿐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대화를 하면서도 대화가 되지 않는 듯한 설정은 개인에게 주어진 문제가 다른 이의 문제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크기인 것을 보여주는 설정으로 보인다. 걱정의 차이는 세대 간에 주어진 현실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버지의 걱정이 일상과 집 안으로 한정되고 나의 걱정은 일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는 곧 일상의 이면이기 때문에 이들의 걱정은 동떨어지지 않는다. 7연의 “골목길에 그림자를 남겨두고” 집에 들어가는 “나”와 “아버지”의 행위로 인해 “골목길”과 “집”의 차이가 드러난다. 골목길-집의 차이는 세계-세계가 들어오지 않는 공간으로 보인다. “집”의 또 다른 특징은 “어머니”가 있는 공간이자 어머니의 노동 공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의 말미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에 각자의 “그림자”를 “남겨두고” 집에 들어서는 장면은 “어머니”의 역할과 연결된다.

나)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당신과 딸”이 속해 있는 “시대의 뒷모습”이 가정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 연의 화자는 “어머니”인데, “지붕 아래” 있는 “어머니”와 달리 “당신과 딸”은 바깥 생활을 한다. 집 바깥 “최루탄 냄새” 나는 곳에서, “당신”은 자본주의 체계 아래에서 괴로워하고 “딸”은 “군부독재” 아래에서 주어진 현실과 싸운다. “어머니”는 집에서 “빨래”를 하며 “최루탄 냄새”를 “행군”다. 가)에서 어머니가 있는 “집”에 “그림자”를 남겨두고 가는 것처럼 나)에서 “어머니”도 “시대의 뒷모습”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가)와 나)를 비교해서 읽을 때 허수경 시인의 시에서 “그림자” 이미지는 “시대의 뒷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집”을 세계가 들어오지 못하는 공간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역할이다. “어머니”의 역할은 시 「남강시편 3」의 “아낙”들의 가사노동에서도 드러난다.

사내들의 영광은 아낙들의 눈물 / 영광은 자궁 속에 깊이 감추어 두고 / 늦은 빨래를 하러 나옵니다

물살에 내맡긴 사내들의 빨래에는 / 땀자국 핏자국 황토흙도 짙어 있고 / 북만주 훔날리는 아득한 눈발 / 원망과 갈망과 목놓아 소리하던 / 꿈도 묻어 나오지만 / 눈부시게 행구하고 나면 / 오직 그리운 눈매 유순한 눈매

이 눈매를 가지고 사내들은 칼잡이 되고 / 글쟁이도 되어 외진 곳에 갇히기도 하고 / 살아 욕됨을 뺏속에 묻어 / 죽어 영광되기도 하지만

심줄 굵은 아낙들의 팔목에는 / 개화 이후 이 나라 온갖 수난사가 / 강물 텃줄 실려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 참아 더 이상 못 참는 날에도 / 소리 죽여 흐느끼며 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눈물 속에 / 개화기 이후 이 나라 굵은 산맥들이 / 아늑하게 깃을 치며 살아갑니다

- 「남강시편 3」 전문

「남강시편 3」은 ‘여성의 노동’의 의미를 그린 시다. 시에서 “아낙”의 일은 가사노동으로서의 “빨래”이다. 하지만 이 “빨래”는 평범한 “빨래”가 아닌 “사내”들의 옷에 묻은 “땀자국 핏자국 황토흙”과 “원망과 갈망과 목놓아 소리하던/ 꿈”을 행구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아낙의 가사노동으로 인해 “사내들은 칼집이 되고/ 글쟁이도 되어” “살아 욕됨을 뺏속에 묻어/ 죽어 영광”이 된다. “심줄 굵은 아낙들의 팔목에는/ 개화 이후 이 나라 온갖 수난사가/ 강물 텃줄 실려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의 대목을 통해 여성의 몸(“팔목”)이 “강물 텃줄”로 비유되는 “이나라 온갖 수난사”를 담기는 은유로서의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스피박은 “가사노동과 육아를 둘러싼 여성노동을 ‘감성적으로 필요한 노동’이라 부르며 맑스식의 가치결정에 바깥에 있으면서도 그 체계의 영향을 받는 이중성을 갖는다고 파악한다.”<sup>66)</sup> 나라의 “수난사” 속에서 남편들이 밖에서 싸우는 것이 사회적인 일이라면 아낙들의 가사노동은 개인적이고 사서로운 일처럼 보이지만 이 시에서 아낙들의 가사노동은 “사내들”에게 “유순한 눈매”를 돌려준다는 점에서 집 밖의 일과 무관하지 않다.

이 시에서 “사내들의 영광은 아낙들의 눈물”이라는 대목을 볼 때 “사내들의 영광”과 “아낙들의 눈물”은 동등시된다. 이러한 시인의 시선은 기존의 역사를 재현하지만 남성중심적 역사가 놓치고 있는 여성의 존재와 여성의 역할을 대변하고 다시-제시한다. 아낙들의 가사노동을 통해 사내들은 “오직 그리운 눈매 유순한 눈매”를 가지게 되고 그러한 “눈매를 가지고” “칼집이 되고/ 글쟁이도 되어” “죽어 영광”이 되는데 이를 통해 사내들의 행위와 노동과 영광의 배경에 여성들의 빨래로 그려지는 가사노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은 가부장제와 제국주의의 이중 억압 아래 있는 하위주체이며 “국제적 노동분업의 악화된 상황에서” 여성은 “가장 열악한 희생자들”<sup>67)</sup>이다. 2차세계대전 이후 제국들이 하나둘 식민 종속국의 영토에서 물러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기업은 제3세계 여성의 노동과 희생 위에서만 있으며 이는 신식민주의에 해당한다.

「남강시편 3」은 남성의 “영광”에 가린 곳에 여성의 노동이 있음을 밝힌다는 점에서 이중 억압의 “희생자들”이었던 제3세계 여성들에게 여성들의 몫을 돌려주고 있

66)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2001, 78-79쪽.

67) 가야트리 스피박, 『다른 세상에서』, 여이연, 2008, 344쪽

는 시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허수경 시인은 역사에서 소외된 하위주체에 주목하여 그들의 일상을 재현한다. 여기서 재현은 일상의 고발을 넘어 그들의 삶과 무의식에 남아 있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그리고 가부장제의 잔여물을 제거하려는 시도이다. 또한 ‘재현’은 허수경 시인이 생각했던 시의 역할이다. ‘기억’하는 것으로 ‘평화’하는 것이 시인이 생각하는 시의 정치성인 것이다. 이러한 시는 스피박이 말한 재현의 두 가지 의미, 즉 ‘대변’으로서의 재현과 ‘다시-제시’로서의 재현의 의미가 함께 속해 있다. 허수경 시인의 재현은 하위주체의 삶을 ‘대변’함으로써 이데올로기로 인한 폭력의 잔여물을 ‘다시-제시’한다.

## 2.2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신적 난민’으로서의 개인

허수경의 시의 여러 주제 중 하나인 ‘디아스포라’의 특징은 두 번째 시집인 『혼자 가는 먼 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허수경 시인의 시 세계는 “고향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독일로 발굴을 하느라 시리아로 터키로”<sup>68)</sup> 이동했던 그녀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허수경 시의 중점적인 주제인 만큼 디아스포라 문학으로서의 허수경 시인의 시를 해석한 연구가 이미 다양하게 진행되었다.<sup>69)</sup>

허수경 시인의 첫 번째 이동은 고향 진주에서 서울로의 이동이다. 두 번째 시집인 『혼자 가는 먼 집』의 배경이 되는 서울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시인의 삶을 통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하위주체의 삶이 재현된다. 시인의 첫 번째 이동은 이후의 이동과 구별된다. 이러한 구별 지점은 첫 번째 시집과 두 번째 시집에서의 차이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시집에서의 시적 주체는 식민지, 전쟁, 독재로 인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고통받는 하위주체와 특히 여성으로서의 하위주체의 역할에 주목한다. 여기서 역사적 사건은 하위주체가 처한 현실이지만 하위주체의 외부의 사건을 전제로 한다. 반면에 두 번째 시집에는 서울에서 “몸”과 “마음”이 고통받은 주체가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는 시’와 ‘같은 고통 아래 있는 하위주체를 대변하는 시’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고통은 ‘외로움’으로 그려지는 정신적 고통과 ‘배고픔’으로 그려지는 육체적 고통이라는 점에서 원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눈에 쉽게 보이지 않을 뿐 고통의 원인은 자본주의 사회경제 시스템이 태동하던 서울에서 노동자로, 여성으로, 하위주체로 사는 삶, 그 자체가 원인이며 이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첫 번째 시집의 고통과 구별된다. 이러한 내적 감응을 통한 고통의 경험은 시적 주체의 시 세계를 확장시킨다. 따라서 진주에서 서울로의 이주로 인한 이방인으로서의 경험은 허수경 시 세계에서 1차 확장 지점이 된다.

식민담론은 영토 침입이라는 가시적인 지배 뿐만 아니라 문화적 침입이라는 비가시적인 지배 또한 포함한다. 피식민국가가 영토적 측면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문화와 무의식에 뿌리내린 식민지 흔적으로부터 다시 탈식민해야 하는 것이

68) 허수경,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 창비, 2001, 시인의 말.

69) ①김지율, 「허수경 시의 ‘고향’이라는 헤테로토피아의 변모와 서발턴 연구」, 우리말글 93호, 우리말글학회, 2022, 259-292쪽.

②박은선, 「허수경 시의 디아스포라 의식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2022

다. 여기서 식민지 흔적은 피식민지인들에게 벗어나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모방을 통해 받아들여야 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피식민지인들은 자신의 토착문화와 식민지 흔적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는데 식민지 흔적을 뒤로하고 토착문화를 되찾으려 해도 식민 지배 이전의 토착문화를 온전히 되찾기란 쉽지 않을뿐더러 “식민지 문화와 피식민지 문화 사이의 융합과 적대”를 완전히 분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유럽중심주의를 품고 있는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는 ‘식민주체’(colonial subject)를 만들어냈다. 탈식민주의자들은 ‘식민주체’가 식민주의자들의 문화를 따라하려고 하는 것을 ‘모방’(mimicry)이라고 부른다. 식민주의 이데올로기 안에서의 모방은 자신의 문화를 열등한 것이라 여기는 “수치심”과 식민주의자들로부터 “인정 받으려는” “욕망”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적 식민화”로 인해 식민주체는 이중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중의식이란 식민주의자들의 문화와 토착문화 사이에서 “분열되는 의식 또는 세계 이해 방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탈식민주의 이론가들이 말하는 ‘고향이 아닌 듯한 낯센 (unhomeliness)’은 고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향에 있을 때 조차 (고향에 있는 듯한) 편안함(at home)을 느낄 수 없다는 뜻이다.”<sup>70)</sup> 이는 어느 곳에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주체의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이며 이러한 상황이 “정신적 난민”<sup>71)</sup>을 만들어낸다.<sup>72)</sup>

사내는 환한 등불 아래 웅크리고 앉아 건물을 지켰도다  
 오 쓸모없는 건물 이 건물의 주인은 자본이 사유해낼 수 없는 꿈을  
 가졌던 모양이군 임대되지 않는 형이상학이야

사내는 천천히 도시락을 꺼내네  
 식은 밥은 마른 찬처럼 아픈 식도를 내려가 빈 위장에 가지처럼 박혔  
 도다  
 아마 식은 밥이 내 생애의 전당물이었을걸 나는 아직도 밥을 먹으면  
 마음이

70) 로이슨 타이슨, 『비평 이론의 모든 것』, 앨피, 2012, 868쪽

71) 같은 책, 868쪽

72) 같은 책, 862~863쪽 참조

아파오지 쓸모없는 건물같이 잘 임대가 되지 않는 생애에도 격절보다는 능선이

많은 법이거든 이만큼 이어온 것이 차라리 식은 밥처럼 내 식도를 건드려주기만 해도

내 표정은 변할 수 있었어 나의 무표정은 내 생애처럼 끈질기지 나는 어디에다 표정을 빠뜨리고 말았을까

꿈 같은 임대를 기다리며 식후의 보리차를 테우는 것이

밥이 아픈 건 능선의 고향 같은 것일 뿐이다

새로 끼운 유리창 너머로 웬 아가씨가 여길 들여다보고 있을까

이봐요 아가씨

당신은 이 도시에서 몸부터 먼저 헐릴 거야 끝내 마음은 가지고 다닐 수 없이 무거워지겠지 벌써 저녁이 끔찍한가

아가씨

무표정과 동무할 수 있는 건 도시의 등불밖엔 없어

아가씨 빨리 갈 길을 가요 얼마나 수많은 끔찍한 저녁이 삭신에 걸터앉아야 무표정하게 나를 스쳐갈 수 있을지 때로 밥이 아프거든 능선의 고향을 생각해요 끝내 갈 수 없는 곳일 터이므로

이 건물의 주인은 조랑말도 지나갈 수 없는 곳에다 포크레인을 끌어 들일 게 뭐람 저 가질 수 없는 표정을 한 아가씨

저 아가씨라도 자본이 소유해낼 수 있는 꿈을 가졌으면 좋으련만 빌어먹을, 무표정을 새로 시작하려는 것들이 끊임없이 목숨을 받고 또 받고 있는 걸까

- 「표정 1」 전문

「표정 1」은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살아가며 도시화된 인간 “사내”와 이제 갓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살게된 인간 “아가씨”, 두 인물의 차이를 통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개인이 겪는 고통을 드러낸 시다. 두 인물의 차이는 “표정”에서 나타난다. 사내는 자신의 처지를 묘사하며 이제 갓 서울에 정착한 것으로 보이는 “아가씨”의 곧 닥칠 미래를 걱정한다. “사내”로부터 묘사되는 서울은 “몸”이 “헐리”고 “마음은

가지고 다닐 수 없이 무거워지”는 곳이며 “표정”을 잃어버려 “무표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곳이다. 도시화된 인간이 기댈 수 있는 곳은 “도시의 등불” 뿐이며 서울에서의 삶은 “수많은 끔찍한 저녁이 삭신에 걸터 앉”게 되는 곳이다. 서울에서의 삶은 “표정”을 잃어버려야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도시화된 인간인 사내는 도시화되지 않은 아가씨의 표정을 보며 “자신이 끝내 가질 수 없는 표정”이라 표현한다.

사내가 겪어온 서울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루어낸 도시의 이면에서 얼마나 많은 하위주체의 삶이 희생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사내가 “식은 밥”을 먹을 때 아픈 것은 “능선의 고향”을 떠올리기 때문인데 이미 “식은 밥이 내 생애의 전당물”이 된 사내의 삶에 고향이란 다른 곳에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기억 속에만 남은 고향이다. 고향에서도 서울에서도 ‘고향이 아닌 듯한 낯섦’ unhomeliness을 느끼는 “무표정” 사내의 삶에서 사내가 기댈 것이라곤 “도시의 등불”, 즉 “카바이드불” 밖에 없다. “정신적 난민” 상태의 사내는 이제 갓 서울에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 아가씨에게 들리지 않는 충고를 한다. “밥이 아프거든 능선의 고향을 생각”하라는 충고엔 해답이 없다. “아가씨”가 할 수 있는 것은 “능선의 고향을 생각”하며 사내처럼 “울음의 도시”(「표정 2」)에서의 시간을 견디는 것 뿐이다.

허수경 시에서 서울은 무리한 경제발전, 즉 자본주의의 가속화가 진행되는 시점에서의 장소이다. 두 번째 시집 『혼자 가는 먼 집』에서 시적 주체는 서울에서의 생활로 “몸”이 “헐리”고 “마음은 가지고 다닐 수 없이 무거워진” 상태이다. 이러한 상실과 고통으로 인한 고백으로 인해 두 번째 시집이 첫 시집에 비해 감성적이고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sup>73)</sup> 하지만 서울이라는 공간을 도시를 넘어 자본주의의 산물로 볼 때, 주체의 서울에서의 고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된다. 자본주의 이면에 드리워진 거대 기업이 제3세계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은 식민주의의 연장선에서 영토적 식민주의의 철수 이후에 피식민지 백성

---

73) “그의 첫 시집은 주관적인 진술과 주체의 발화가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도 하지만, 좀 더 벨랑콜리한 특성이 많이 발화된 제 2시집 『혼자 가는 먼 집』보다 다양한 주체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이다. 『혼자 가는 먼 집』이 개인의 슬픔에 상당부분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반해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에서는 원폭 폭탄과 조선식 회상 같은 역사적인 아픔에 천착하고 있다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독일 유학 이후에 발간한 『내 영혼은 오래 되었으나』에는 과거의 시간들을 추억하며 그리워하는 상당 부분의 시들이 있다.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에서 보여주는 역사적인 관점의 슬픔이 『내 영혼은 오래 되었으나』에서 역시 현현되고 있으나 격정적이고 적극적인 화자가 등장하기 보다는 체념적이고 관조적이고 사색적인 화자가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혜순, 앞의 글, 276쪽.)

들에게 남겨진 또 다른 숙제라고 할 수 있다. 근대화와 자본주의의 산물로서 서울을 해석할 때 서울에서의 노동자와 여성은 거대 기업이라는 식민주의의 틀 안에서 희생되는 하위주체들이다.

“사내”와 “아가씨”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자본주의로 물든 서울이라는 도시는 하위주체의 고향을 지우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붕괴시킨다는 것을 시적 발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자본주의는 효율적 생산을 중시하는 경제체제이다. 자본주의의 시작이었던 서구 사회와 달리 서울은 급격한 성장을 위해 소외되는 이들의 처지를 전혀 살피지 못했다. 시의 말미에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이 건물의 주인은 조랑말도 지나갈 수 없는 곳에다 포크레인을 끌어들이 게 뭐람”이라는 화자의 발화는 한국의 자본주의의 성격을 드러낸다. “조랑말도 지나갈 수 없는 곳”에 “포크레인”을 들이는 것은 마치 음식이 소화되기도 전에 몸을 키우기 위해 때려 먹는 사람을 떠올리게 한다.

허수경 시인의 시에서 “고향”은 돌아갈 수 없는 곳이다. 이러한 고향의 특징은 유목민의 특징이기도 한데 제국주의에서 벗어난 식민 종속국 사람들은 제국주의의 문화와 토착문화 사이에 이중의식을 갖게 되는데 자신들의 토착문화를 되찾으려고 해도 문화의 변화하는 특성 때문에 온전한 토착문화를 되찾을 수 없게 된다. 허수경 시 세계에서 그려지는 “고향” 또한 이러한 특성을 갖는다. 공간으로서의 “고향”은 남아 있지만 하위주체들에게 고향은 “끝내 돌아갈 수 없는 곳”이다. 돌아간다고 해도 이전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향”을 향한 시적 발화는 다수의 시에서 드러난다. “고향”을 생각하는 것만이 “고향”을 잃은 주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이지만 허수경 시에서 잠시나마 “고향”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방법을 다음 시편을 살펴보며 찾아보고자 한다.

가)

환멸아, 네가 내 몸을 빠져나가 술을 사왔니?  
아린 손가락 끝으로 개나리가 피는구나  
나, 세간의 블록담에 기대 존다

나, 술 마신다  
이런 말을 듣는 이 없이 했었다

나, 취했다, 에이 거지같이

(...)

아팠겠구나, 에이, 거지같이  
나 말짱해, 세간의 블록담 위로  
구름이 흩어진다 실밥같이 흩어진  
미싱 바늘같이 촘촘한  
집집마다 걸어놓은 홍등의 불빛, 누이여  
어머니,  
이 세간 혼몽에 잘 먹고 갑니다

- 「쉬고 있는 사람」 부분

나)

어느 해 봄그늘 술자리였던가  
나 마음을 보내지 않았다  
더는 취하지 않아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길이  
날 묶어  
더 이상 안녕하기를 원하지도 않았으나  
더 이상 안녕하지도 않았다

봄그늘 아래 얼굴을 묻고  
나 울었던가  
울기를 그만두고 다시 걸었던가  
나 마음을 놓아 보낸 기억만 없다

- 「불취불귀」 부분

‘도시’로 이동한 하위주체의 이향 경험은 “탈영토화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주체의 “뿌리가 갖던 완고한 힘을 완화시키면서 파편화 현상만 낳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를 끌어안을 수 있는 열린 자세로써 문화적 혼종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sup>74)</sup>인단.

고향에서도 서울에서도 ‘고향이 아닌 듯한 낯섦’을 느끼는 화자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꿈을 꿀 때와 술에 취했을 때 뿐이다. 가)에서 화자는 “나, 술 마신다”고 말하지만 홀로 술에 취한다. 이 시에서 화자는 술에 취한 채 “혼몽” 속에서 고향에 있는 (하지만 현실에서 돌아갈 수 없는) “누이”와 “어머니”가 차린 밥을 먹고 돌아온다. 나)의 ‘불취불귀’의 뜻은 ‘취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이다. 화자는 “더는 취하지 않”는 상태이다. 제목을 통해 짐작하건대 화자는 술에 취했을 때만 기억 속에만 남은 고향에 다녀올 수 있고 “더는 취하지 않아”라는 대목에서 화자는 고향에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나 울었던가 / 울기를 그만두고 다시 걸었던가”의 대목을 통해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좌절했다가 또 시작되는 일상을 다시 살았다가 또 좌절하는, 화자의 심적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어느 곳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화자의 삶은 편안하기를 원하지도 않았지만 “더 이상 안녕하지” 않은 상태이다.

기존의 고향과 현재의 고향, 즉 모든 고향의 부재 상태에서 하위주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울다가 “울기를 그만두고 다시 걸”음을 옮기는 것 뿐이다. 이 “울음의 도시”(「표정 2」)에서의 개인 내부적 고통의 재현은 앞서 2.1장에서 시인이 역사에서 소외되었던 하위주체들의 삶에 주목한 역사의 고통 재현과 다르다. 진주에서 서울로의 이주 후에 자본주의로 비유되는 서울에서의 삶을 통해 내적 감응을 통한 고통을 겪은 시인의 시선은 확장되는데 이는 시인의 시 세계의 첫 번째 확장에 해당하며 이 확장을 통해 이후 시 세계에서 고고학적 이미지와 타국의 전쟁 재현이 야기된다는 점을 통해 보다 중요한 지점임을 알 수 있다.

지진으로 사라진 도시를 추억하거나  
 이제는 방문할 수 없는 전쟁 속의 도시를 추억하며  
 오래 도서관에서 서성인 날

- 「그때」 전문

첫 번째 시집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가 시인이 태어나기 전에 발발한 전쟁으로 자신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의 경험이나 “한반도”라는 땅의

---

74) 태혜숙, 앞의 책, 여이연

역사를 통해 재현된다면 이라크전쟁은 시인이 직접 목격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라크전쟁은 시인에게 또다른 죽음이다. 고고학을 전공하고 발굴을 위해 터키로 시리아로 떠났던 시인에게 발굴지는 “잊힌 도시가 아니”라 “자신의 환상 속에서 움직이고 자신을 구속하는 살아 있는 현재”이다. 이라크전쟁으로 인해 전쟁 중 폭격과 도굴을 거치면서 “이라크에 있는 그 많은 폐허 도시는 그 도시가 지닌 기억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못한 채 영원한 잊음의 세계로 들어”<sup>75)</sup>가는 상황에 놓였다. 전쟁이 아니라면 고고학자에게 아직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의 세상이었던 발굴지가 전쟁으로 인한 폭격과 도굴로 인해 망가지는 상황을 시인은 「새벽 발굴」에서 그려내고 있다.

아직 해는 도착하지 않았습디다만  
 이곳으로 올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삼 초 간격으로 달라지는 하늘빛을 보세요  
 마치 적군의 진격을 목전에 둔 마을  
 여인들의 공포 같은  
 빛의 움직임

해가 정격 포즈로 하늘을 완전 점령하고 나면  
 이 발굴지를 덩석 집어 제 식민지를 건설합니다  
 사탕수수도 목화도 자라지 않는 이 폐허  
 해는 이곳에 아찔한 정적을 경작하고  
 햇빛은 자유 데모보다 더 강렬하게  
 폐허의 심장을 움켜쥐지요

사방으로 출자를 두르고  
 칼로 잘라낸 듯 땅을 나누고

(기록을 위해 만들어진 이 기술은 귀여워요, 감쪽같이 당신이 이 지구에 있었던 마지막 자리를 남북경위도 숫자로 딱 매겨내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격자 안에 든 작은 발굴지 지도를 좀 보세요, 그 안에 점을 찍으면 그 점이 당신의 마지막 지상의 자리가 됩니다)

---

75) 허수경, 『나는 발굴지에 있었다』, 난다, 2018, 29쪽.

그대들은 누구이신지요 앉은 다리로 서쪽을 향해 머리를 두고  
이 무덤 안에 든 그대들은 누구인지요  
햇빛이 나오자마자 날아오는 초원의 파리떼들  
아직 산 자의 뜨거운 얼굴 땀으로 엉겨드는 파리떼들

이름 없는 집단 무덤  
해골 없이 다리뼈만 남아 있거나 마디가 다 잘린 손발을 가진 그대들  
해와 달이 다 집어먹어버린 곤죽의 살덩이들은  
흙이 되어 가깝게 그대들의 뼈를 덮었는데  
아직 흙에는 물기가 남아 있어  
비닐봉지에 그대들을 담으면 송송 물이 맺힙니다

그대들은 누구신지요 심장 없는 별을 군복 깊숙이 넣고 사는  
그대들은 누구신지요 저 초원에 사는 베두원들이  
별에 쫓겨 이 폐허로 들어와 실타래 같은 짠 치즈를 팔고  
해에 쫓겨 헉헉거리다 잠시 하는 휴식시간,  
설탕에 절인 살구를 치즈와 함께 목구멍으로 넘기는  
이 점령지 폐허에서 그대를 발굴하는  
이는 또 누구인지요

저 해는 제 식민지를 잘 관리하는 이를테면 우주의 소작인인데  
그리하여 우주보다 더 혹독하게 폐허의 등허리를 누르는데  
흙먼지 미립 속에 찬연히 들어와 움직이는 식민 권력 속에  
목마른 이는 물을 구하러 마을로 가고  
폐허에 남은 이는 그대가 든 비닐봉지에 구멍을 뚫어주며  
그대의 마지막 물기를 말리고 있습니다

- 「새벽 발굴」 전문

“폐허” 도시는 인간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다. 인간 중 누구도 살지 않고 살 수 없으며 인간의 기억에서 마저 떨어진 이곳은 자연의 터전이 된다. 인간의 시간의 층위 위에 자연이 터전을 잡는 것이다. 「새벽 발굴」

에서 자연은 “해”와 “곤충”으로 비유된다. 시의 배경은 “새벽”이고 해가 뜨기 전에 시인은 발굴터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시인은 1~2연에서 “해”라는 자연이 인간의 시간의 층위 위에 “식민지를 건설”한다고 발화함으로써 자연의 도시 점령을 식민지에 비유한다. “폐허의 심장”을 움켜쥔 “햇빛”의 시간이 현재인 “지금과 가장 가까운 시간”<sup>76)</sup>인 것이다. “폐허 도시는 누군가가 오래된 잊힘에서 그 도시를 불러내면서 새롭게 태어난다.”<sup>77)</sup> 시인은 “줄자를 두르고 / 칼로 잘라낸 듯 땅을 나누”고는 ‘폐허 도시’에 갇힌 “무덤 안에 든 그대들”과 “다리뼈만 남”은 “그대들”, “심장 없는 별을 군복 깊숙이 넣고 사는 그대들”을 “불러낸다”. 이러한 고고학자의 발굴 방식은 시적 발화를 통한 재현과 흡사하다. 허수경 시인은 시적 재현을 통해 역사에서 소외된 존재들을 대변하고 다시-제시한다. 하위주체들의 존재와 목소리가 존재하지만 체계 안에서 비가시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생각할 때 발굴지를 향한 고고학자의 발굴을 통한 재현은 고고학자가 비가시적인 인간의 시간 층위를 “불러내”는 것과 같다. 시 안에 등장하는 식민 종주로서의 자연 “해”에게 지배된 ‘폐허 도시’는 “도시로서는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으나” “발굴을 하는 자에게 폐허 도시는 잊힌 도시가 아니”라 발굴자의 “환상 속에서” “살아 있는 현재이다.” 앞서 언급했듯 이러한 고고학자의 태도는 허수경 시인의 시적 재현을 향한 태도와 닮아 있다. 허수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뒤로 가는 실험을 하는 것이 앞으로 가는 실험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을 수도 있다. 뒤로 가나 앞으로 가나 우리들 모두는 둥근 공처럼 생긴 별에 산다.”<sup>78)</sup>고 말했다. 허수경은 ‘재현’의 방식으로 인간이 지나온 시간을 다시 살고 그 과정에서 현재 인간의 시간을 다시 제시한다. 여기서 다시 제시하는 것은 앞선 재현을 통해 과거의 시간을,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현재의 “평화”<sup>79)</sup> 바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고고학은 왜 중요할까. 허수경은 고고학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옛날 사람들은 어떤 일상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 “평범한 사람의 일상을 해석하는 것이 소중한 이유는 그 안에 평화주의 정신이 깃들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허수경에게 과거를 기억하는 것 그

---

76) 같은 책, 21쪽

77) 같은 책, 22쪽

78) 허수경,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문학과지성사, 2005, 뒤표지 글.

79) 같은 책, 뒤표지 글.

리고 “이름 없이 사라져간 많은 이들의 역사”를 연구하고 추측해보는 것은 “작은 평화”를 찾는 일이다. “이름 없이 사라져간 많은 이들의 역사”와 더 사소하게 여겨진 그들의 일상은 인간의 역사에 남지 않은 것들이다. 역사 또한 권력을 쥔 사람들에게 의해 기록되어져 왔으므로 고고학이 “이름 없는 것들”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탈식민주의 관점에서의 또 다른 형태의 ‘재현’이라 할 수 있다. 고고학자이자 시인으로서 허수경은 “도서관에”서 만남 “검은 얼굴을 한 청소부”에게서 “붉은 대륙”(「아마도 그건 작은 이야기」)을 보고, ‘폐허 도시’에서 “시간의 순서”와 인간이 살아온 흔적으로 “토기 파편, 돼지뼈, 소뼈, 진흙개, 바퀴, 곡식알”(「시간언덕」)을 본다. 지난한 역사 속에서 “수없이 파괴당했던” 인간의 시간을, 하위주체의 시간을 “다시 건설한다.”<sup>80)</sup>

비는 오고  
 광장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여자 거지  
 루마니아에서 왔네  
 아침에 나와 다섯 시간 동안 구걸을 하다가  
 그녀는 번 돈을 들고 조직의 대장에게 간다  
 대장은 여자에게 돈을 받고  
 여자의 아들을 돌려주네  
 동전을 주려다 나는 멈칫하네  
 그녀를 감시하는 대장의 눈길이 여자의 어깨에 있어  
 루마니아에서 태어나 나치에게 부모를 잃고  
 오스트리아를 거쳐 파리로 갔다가  
 마침내 파리에서 자살한 시인을  
 아느냐고 나는 물어볼 수가 없었네  
 내가 멈칫하자 여자는 나를 향해서 욕을 하기 시작하네  
 비는 오고  
 나는 여자의 욕설을 맞네  
 여자의 욕을 알아들을 수 없네  
 루마니아어로 하는 욕은 비만큼 낮설어  
 칠십 년 전 이 광장에서

80) 허수경, 『나는 발굴지에 있었다』, 난다, 2018, 30쪽.

히틀러 만세를 외치던 사람들만큼 낮설어  
그 와중에 죽은 시인을 떠올리는 나도 낮설어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낯선 역사적인 존재들  
비는 오고  
우리는 젖고 욕도 젖고

- 「루마니아어로 욕 언어먹은 날에」 전문

「루마니아어로 욕 언어먹은 날에」에서 “비는 오고”는 세 번 발화된다. 첫 번째 “비는 오고”의 상황에서 루마니아의 “여자 거지”가 구걸을 하는데 이는, “조직에” 담보로 맡겨진 “여자의 아들”을 되찾기 위함이다. 이러한 장면을 봐버린 나는 “동전을 주려다” “멈칫한다. 이러한 “나”에게 “루마니아 여자는” “욕을 하기 시작한다”. 루마니아 여자가 “아들”을 되찾기 위해 “구걸을” 한다는 점에서 그녀는 여성을 향한 체제의 억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체제로 그려지는 “조직”에게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녀가 “나를 향해서 욕을 하”는 것은 루마니아 여자의 폭력적인 면모로 읽는 것이 간편하겠지만 체제를 향해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던 하위주체가 발화한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할 때 그녀의 발화로서의 “욕”은 중요하다.

두 번째 “비는 오고”의 상황에서 “나는” “여자의 욕설을 맞”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루마니아어에서 “히틀러 만세를 외치던 사람들”의 낮설음을 본다. 또한 “나는” 루마니아 여자를 보며 “루마니아에서 태어나” “오스트리아를 거쳐 파리로 간” 이향의 연속의 삶을 산 루마니아 시인을 떠올리는데 이는 허수경 시인의 삶과 연결된다. 이러한 지점에서 내가 루마니아 여자 앞에서 멈칫한 것은 그녀에게서 루마니아 시인을 떠올린 것을 너머 그녀에게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한 사람에게서 타국의 역사를 보고 자신과 타인을, 그것도 타국의 사람을 동일시 하는 시선으로 화자는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낯선 역사적인 존재들”임을 고백한다. 세 번째 “비는 오고”에서 “우리는 젖고 욕도 젖고”라는 발화로 시가 마무리되는데 “물”이라는 속성은 경계가 없는 물질이라는 점에서 체계 속의 타자화 경계를 희미하게 하는 비유로서 “비”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시는 스피박의 ‘말을 할 수 없는 하위주체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시적 발화를 통해 표현된 예시이다. “여자”는 제국이 아닌 연속적으로 침략을 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루마니아 사람’이고 남성이 아닌 ‘여성’이기 때문에 제국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한 억압에

이중으로 노출되어 있다. “그녀를 감시하는 대장의 눈길이 여자의 어깨에 있어”의 대목은 여자를 억압하는 이념을 이미지를 통해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을 하거나 “아들”을 돌봐야 하는 삶에서 ‘루마니아 여자’는 주권을 잃은 상태이다. 하지만 화자에게 “욕을 할” 때 표현의 방식이 어떠한 ‘루마니아 여자’는 주권을 얻는다. 시 안에서 그녀가 어떤 욕을 했는지 파악할 수 없지만 화자의 행위가 그녀의 입을 트이게 한 것이 중요하다.

이 시에는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한다. 시적 화자이자 시인 자신으로 읽히는 ‘나’와 구결하는 ‘루마니아 사람’ 그리고 ‘루마니아 시인’으로 표현되는 파울 첼란<sup>81)</sup>이 그 세 사람에게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 이방인이며 식민 종속국의 시민이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시적 화자인 내가 루마니아 사람을 보며 루마니아 시인을 떠올리는 순간, 타자였던 루마니아 사람은 나와 공통된 존재가 된다. “이방인”과 “피식민지인”으로서의 공통점이 결국 역사에서 가려진 존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서로서에게 낯선 역사적인 존재들”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공통점을 “역사적인 존재들”이라고 발화함으로써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울릉도산 취나물 북해산 조갯살 중국산 들기름  
타이산 피쉬소스 알프스에서 온 소금 스페인산 마늘 이태리산 쌀

가스는 러시아에서 오고  
취나물 레시피는 모 요리 블로거의 것

독일 냄비에다 독일 밭에서 자란 유채기름을 두르고  
완벽한 글로벌의 블루스를 준비한다

글로벌의 밭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산에서 온 것들과

---

81) 파울첼란은 1920년 루마니아의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시오니스트였던 아버지로 인해 유대인 학교에서 히브리어로 교육받았고, 독일 문학에 심취했던 어머니의 뜻대로 독일어를 사용했다. 나치로 인해 집단학살 수용소로 끌려갔다가 가까스로 살아 돌아와 대학 공부를 재개했다. 1947년 루마니아 잡지 『아고라』에 처음으로 시를 실었다. 빈으로 거처를 옮겨 살다가 1948년부터 프랑스 시민권을 얻어 파리에 정착했다. 이후 활발히 집필 생활을 이어나갔다. 1970년 4월 센강에 투신해 생을 마감했다. (파울 첼란, 『파울 첼란 전집』, 허수경 옮김, 문학동네, 2020, 참고.)

취나물 볶아서 잘 차려두고 완벽한 고향을 건설한다

고향을 건설하는 인간의 가장 완벽한 내면을 건설한다  
완벽한 내면은 글로벌의 위장으로 내려간다

여기에다 외계의 별 한잔이면 글로벌의 블루스는 시작된다  
고향의 입구는 비행장 고향의 신분증은 패스포트

오 년에 한 번 본에 있는 영사관으로 가서 패스포트를 갱신하는

선택이었다 자발적인 유배였으며 자유롭고 우울한  
선택의 블루스가 흐르는 세계의 중심부에서 변방까지  
불선택의 블루스가 흐르는 삶과 죽음까지

글로벌이라는 새 고향, 블루스를 울어야 하는 것이다

이 가난의 고향에는 우주도 없고 이 가난의 고향에는  
지구에 사는 인간의 말을 해독하고 싶은 외계도 없다

다만 블루스가 흐르는 인공위성의 심장을 가진  
바람만이 있다 별 한잔만이 글로벌의 위장 안에서 진다

- 「글로벌 블루스 2009」 전문

「글로벌 블루스 2009」에서 시인은 다양한 국가의 식자재로 요리를 한다. 이러한 요리를 만들거나 먹는 인간의 내면은 제국이 심어놓은 모든 이분법이 사라진 세계이기 때문에 “완벽한 내면”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가 태동할 때부터 세계는 이미 서로 묶이게 되는 세계화를 시작한 셈이다”<sup>82)</sup> 하지만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식민지 건설과 이로 인한 전쟁과 독재로 “세계화”는 “서로 묶이”는 것이 아닌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혹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는’ 역사의 연속이었다. 이주를 거듭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시인은 “선택”과 “불연속” 속에서 비로소 “글

---

82) 테헤숙, 앞의 책, 63쪽.

로벌이라는 새 고향”에 도달한다. “글로벌이라는 새 고향”은 “블루스가 흐르는” 곳이다. 블루스는 미국 사회의 지배 세력이었던 백인 계층에게 줄곧 인종주의적 맥락에서 타자화되면서 ‘탄식하는 듯한 음조’나 ‘타락한 것’ 그리고 ‘술자리에나 적합한 것’으로 감주되고 폄하되었던 장르이다. 백인 취향의 팝 음악 양식에 대한 타자로서 수용되어 온 것이다.<sup>83)</sup> “글로벌이라는 새 고향”에 “블루스”가 흐르는 것은 미국의 인종주의적 맥락에서의 이분법을 해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제국의 잘못된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이다. 「글로벌 블루스 2009」는 허수경 시인이 생각하는 이상적 세계이다. “글로벌이라는 새 고향”에서는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이 인간을 살해하는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폭력이 존재하지 않음’은 실제로 폭력이 없는 세계가 아닌 과거의 폭력을 기억함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

83) 최유준, 「블루스와 ‘슬픈 음악’의 정치학」, 音樂學 22호, 한국음악학학회, 2012, 116쪽 참조.

### Ⅲ. 인간-비인간, 지구적 관계의 재현

앞 장에서 허수경 시에서 나타나는 역사의 재현을 통해 역사에서 소외되어 재현되지 않았던 하위주체들과 특히 허수경 시에서 그려지는 여성의 노동에 주목하여 시인의 시 세계 확장 지점을 살펴보았다. 하위주체의 범위를 ‘인간’을 넘어 ‘비인간’의 존재까지 확장시키는 재현 대상의 확장이 허수경 시 세계의 두 번째 확장 지점이다. 따라서 3장에서는 탈식민주의 생태학의 관점에서 허수경 시에 나타나는 비인간 양상을 살피고 더 나아가 초객체론의 관점에서 하위주체로서의 비인간이 아닌 객체로서의 인간이 어떻게 시에서 발화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 3.1 하위주체로서의 비인간

이름 없는 섬들에 살던 많은 짐승들이 죽어가는 세월이에요

이름 없는 것들이지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 죽어도 좋다고 말하던  
어느 백인 장교의 명령 같지 않나요  
이름 없는 세월을 나는 이렇게 정의해요

아님, 말 못하는 것들이라 영혼이 없다고 말하던  
근대 입구의 세월 속에  
당신, 아직도 울고 있나요?

오늘도 콜레라가 창궐하는 도읍을 지나  
신시를 짓는 장군들을 보았어요  
나는 그 장군들이 이 지상에 올 때  
신시의 해안에 살던  
도롱뇽 새끼가 저문 눈을 깜빡거리며  
달의 운석처럼 낯선 시간처럼  
날 바라보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면 나는 당신이 바라보던 달걀 프라이였어요  
내가 태어나 당신이 죽고  
죽은 당신의 단백질과 기름으로  
말하는 짐승인 내가 자라는 거지요

이거 긴 세기의 이야기지요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의 이야기지요

-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 전문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은 제1세계/제3세계 할 것 없이 비인간을 향해 식민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기적인 역사를 비판하는 시다. 비인간의 존재 앞에서 역사 속 인간들의 심장은 차갑다. 허수경 시인의 비인간을 향한 시선에는 인간으로서의 죄책감이 실려 있다. 인간의 비인간을 향한 지배는 제국이 피식민의 영토와 정신을 지배했던 것보다 더 무의식적이고 은밀했다. 역사가 인간의 영역이자 ‘그림자’라면 비인간을 향한 인간의 폭력은 역사라는 인간의 존재와 그림자의 “저편이라 어떤 노래의 자취도 없”(「그 그림 속에서」)다. 스피박의 하위주체 개념에서 볼 때 하위주체가 역사에서 소외된 존재들이었다면 비인간은 역사에서 소외된 하위주체들을 포함한 인간 전체로부터 소외된 존재들이다. 인간에 의해 “이름 없는 섬”과 그곳에서 살던 “이름 없는 짐승들”이 인간에 의해 죽어가는 현실은 강대국이 피식민지인들에게 가했던 타자화 방식을 떠올리게 한다.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에서 화자는 비인간을 향한 인간의 착취, 즉 “이름 없는 세월”을 “말을 못 알아들으니 죽여도 좋다고 말하던 / 어느 백인 장교의 명령”으로 “정의”한다. 허수경의 인간-비인간의 관계를 다룬 시에서 비인간을 향한 인간의 태도는 피식민지를 향한 제국의, 서구의 태도와 동일시된다. 앞선 장에서 살펴봤듯 백인들은 자신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식민지인들을 타자화했다. 이 시는 그러한 인간-비인간의 이분법적 관계에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인간-비인간 관계의 이분법적 사고를 인지하고 있는 발화 주체는 자신을 “달걀 프라이”이며 “말하는 짐승”이라고 표현하며 인간인 자신을 비인간의 자리에 놓는다. 이는 인간-비인간의 이분법적 관계와 인간의 식민주의적 태도를 해체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의식과 무의식에서 늘 주체와 중심의 자리에 있었던 인간을 비인간과 같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한편으로 주체와 객체의 경계를 허무는 것과 같다. 허수경은 “긴 세기” 동안 이어져 내려온 이분법을 해체하고 비인간에게 주체의 자리를 내어주며 주체의 자리에 앉아도 하위주체 밖에 될 수 없는 그들의 삶을 재현하는 것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시도를 한다. 이 시에서는 이분법적 문제와 이름 없는 것들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드러냄이 해체의 시도의 발단이 될 수 있지만 문제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체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이 시는 분명한 의의가 있다. 허수경 시인은 문제성을 드러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분법을 완전히 해체하는 대안으로서의 시적 발화로 나아가는데 이러한 지점은 3.2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본문의 시로 돌아가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에서 드러난 비인간을 향한 인간의 태도는 “근대”의 산물이다. 제국주의는 피식민국의 영토를 지배하는 것이 대표적 약탈인데 이러한 약탈은 영토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영토의 생태계를 파괴를 기본적으로 동반한다. 피식민지 국가의 동식물들은 인간들의 전쟁과 이념으로 착취당했다. 이는 제국이 영토에서 물러나도 다국적 기업이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유지된다. 다국적 기업은 자신들의 국가보다 싼 영토를 가진 제3세계 국가에 공장을 짓고 그들의 땅을 개발했다. 또한 제국주의로 인해 들어온 자본주의에 의해 농촌은 사라지고 인간의 편리를 위해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지구상에서 동식물의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나의 어머니는 꼬치구이였다. 어머니의 육체 한 부위는 꼬치였고 다른 부위는 갈비였으며 간과 염통과 내장 역시 구이거나 볶음이었다. 그녀의 털과 가죽은 인간의 시린 등이나 목과 발을 덮혀주었다.

그리고..... 말하자면 (내 이빨 사이로 지나가는 드문드문한 증오를 당신은 보셨는가? 초식동물의 이빨 사이에는 식물의 애도만이 있다, 바람은 식물들 사이를 일렁이다가 내 이빨을 통과하고 위장으로 들어온다. 바람아, 내 핏속에서 식물들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나는 양이다.

어머니의 네 개의 위는 개의 먹이었다.

(중략)

나의 조상은 아주 오래된 양 종류에 속하는 카라쿨양이었다. 카라쿨 양은 기름꼬리양 혹은 넓은꼬리양으로도 불렸다.

오비스 아리에스(OVIS ARIES). 가축화된 우리들의 학명이다.

인간이 지어준 학명은 우리의 존재를 그들의 빈약한 심장 속에 가두어버린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산악양이라 부르든 혹은 카라쿨, 오비스 아리에스라고 부르든 우리는 우리일 뿐.

그러나,

산악을 누비던 오비스 아리에스의 조상. 그 원모습은 얼마나 나에게 남아 있을까? 가축화되던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우리들은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 교배되고 또 교배되었다. 인간은 우리를 지워서 인간의 양인 우리를 만들었다. 지금, 우리는 고기와 털을 얻기 위해 개량된 카라쿨이다.

나는 어미의 세번째 새끼였다. 세번째 새끼인 나는 페르시안 가족털을 인간에게 주기 위해 태어나자마자 이 지상을 떠날 운명이었다.

그러나,

나는 살아남았다. 나에게 젖을 준 인간의 어미 덕분이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육체의 어머니는 나를 자궁에 품고 살해당했다.

나는 인간의 나이로 따지면 두 살, 양의 나이로 따지면 곧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 그것이 내 육체의 시간이다.

내 육체의 어머니가 걸었던 길을 나도 가게 될 것이다. 양을 낳고 그리고 또 낳다가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다. 내 육체도 인간의 먹이가 될 것이고 어쩌면 이곳에서 조금은 멀리 떨어진 마을에 사는 인간들의 먹이가 되

기 위해 냉동육으로 바다를 건너가게 될지도 모르겠다. 냉동육으로 바다를 건너가면서 비닐에 싸인 내 몸은 식품화되지 않은 수많은 생물이 사는 바다를 건너가게 될 것이다.

(중략)

구름이라는 존재의 본성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생기는 것이다. 나는 그 가벼웁고도 명량한 존재가 부럽다. 부드러우나 때로는 힘악한 구름의 임신 말기에 미치도록 내리는 검은 비가 무섭다. 구름의 아이이기는 하나 어머니인 구름과는 아무런 혈연의 보증을 가지지 않는 검은 비가 부럽고도 무섭다. 그 의지는 이해되지 않기에..... 나는 눈을 감고 먼 시간의 바람 냄새를 맡는다.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던 인간의 역사 이전의 바람 앞에서 나는 야생양의 먼 냄새를 맡는다.

(중략)

어머니를 떠올린다. 내 육체의 어머니. 어머니와 나의 관계는 내가 태어나던 그날로 끊어졌으므로 나는 어머니에 대한 아무런 기억이 없다.

내가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여인은 인간의 여자였다.

그녀는 제 젖꼭지를 나에게 내밀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던 불우한 인간의 어미였다. 오늘 내 육체의 어머니를 내가 떠올리는 이유는 아이를 낳기 전에 도살을 당한 어떤 양 때문이다. 내 벗이기도 했던 그녀의 죽음이 나를 어머니 생각으로 들게 한 것이다.

아기의 연하고도 부드러운 가죽털을 얻기 위하여 인간들은 이제 수태시기가 임박한 어미를 죽여 그 자궁에서 아기를 끄집어낸다. 그 아기의 털가죽을 벗긴다. 그 털가죽은 페르시안이라고 불리우는 고급 가죽이 된다. 검은 아기 털가죽. 아직 양수가 묻어 축축한 그 가죽. 그 가죽을 위하여 어미와 아기는 도살되는 것이다. 그녀는 울겨울에 제일 처음으로 도살당한 양이었다. 그녀의 뒤를 따라 수태일이 임박해오는 암양들은 이 집을 나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은 그녀의 뼈와 살, 마늘을 많이 넣고 끓인 국 냄새를 맡을지도 모르겠다.

오늘 먼동이 틀 무렵 우리는 비명을 들었다.

(중략)

뱃속에 든 아가는 더운 숨을 품어내며 이 지상으로 나와서는 킁킁한 어둠 속에서 젓꼭지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아기는 젓꼭지를 찾기도 전에, 그리고 단 한 번도 젓꼭지를 물어보기도 전에 한 생명이었다는 본능적인 원기억만을 지니고 죽는다.

(중략)

젓꼭지가 불거지고 뱃가죽이 땡땡해지면서 그녀는 꿈쩍도 않고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다.

우리는 다들 곧 시기가 임박해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 시간은 왔고

그녀는 이 집을 나갔다.

뒷다리로 몇 번 앙버티면서 나가지 않으려고 앞다리를 힘없이 허공을 향해 치켜들며,

그리고 뱃속에 든 아이 때문에 치켜든 앞다리가 너무나 무거워 쓰러지며, 그리고 그 앞다리는 인간의 손에 붙잡히고 그녀는 이 집을 나갔다.

아마도 내 어미도 그랬을 것이다.

나는 148일 동안 어미의 자궁 안에 들어 있었다. 두 겹의 막으로 둘러싸인 자궁 안에서 첫번째 두 달 동안은 아주 천천히, 그다음 두 달 동안도 아주 천천히, 그러다가 마지막 두 달 동안 나는 자라고 자라났다.

두 앞다리를 어머니의 질 쪽으로 향하게 하고는 머리는 두 앞다리에 묻고 뒷다리는 자궁의 가장 안쪽 곡선에다 기대고는 기다렸다.

그 안에서 내가 발생하는 동안 나는 어떤 꿈을 꾸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혹은 어떤 발생과정을 지나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겪었던 진화의 역사는 나의 유전자들이 기억을 할 뿐.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유전자들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라는 생물의 발생을 전담한다.

(중략)

불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느낌.

나는 꿈쩍하지 않고 오그리고 있었다. 다시 눈을 감았으나 눈을 감고 서도 나는 감지할 수 있었다. 그 불 한가운데 같은 눈이 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기인데도 햇빛은 인간의 양과 그밖의 포유류와 가금류와 곤충과 파충류와 식물과 바이러스가 살고 있는 마을을 그렇게 잠깐 비추었다.

마치 마지막 분초를 알리고 있는 모래시계처럼 느리고 느린가 하더니 그렇게 빨리 스러지는 순간마다 햇빛은 들어왔다.

그렇게 사납게 바라보지 마라, 아직 작은 놈이잖아, 어미가 그 눈빛을 어르고 있었다. 어미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다시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어미는 그 눈빛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목덜미를 쓰다듬고 있었다. 어미 없이 자라는 녀석이다, 그렇게 췌려보지 말어. 눈빛은 아래로 떨구어졌고 앞다리를 앞으로 뻗고 눈빛의 입자는 어미 옆에 암전히 엮드렸다.

개였다. 개라는 냄새를 나는 맡았던 것이다.

이 불면의 밤에 그 눈빛에서 나던 냄새를 떠올린다.

얼마나 많은 순간, 그 눈빛, 혹은 그 냄새 앞에서 나는 겁에 질려 꿈쩍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는가. 그리고 수수께끼는 어미였다. 어미는 나에게 젖을 준 어미이기도 하지만 개의 주인이기도 했다. 그녀가

개의 주인이고 개는 언제나 어미 곁을 어슬렁거린다는 것을 알면서부터 나는 내 탄생에 내재된 공포를 알아차렸다.

바람, 얼음눈, 밤은 나의 것이다.

소금돌을 훑으며 공포에 대해서 생각한다. 나의 공포는 내가 탄생했다는 데 있었다. 그리고 죽음? 공포의 허망한 건기를 지나며 찾아올 죽음. 이렇게 내 위에 따스한 젖을 부어주던 어미의 동종은 내 위를 저 눈빛을 가진 개에게 던져줄 것이다. 마치 내 어미의 위치처럼.

- 「카라쿨양의 에세이」 부분

카라쿨(Karakul)은 양의 품종 중 하나이다.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1400년경에도 카라쿨 양의 가죽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발견은 비인간을 정복해야 할 존재로 여겼던 인간의 긴 역사를 증명한다. 「카라쿨양의 에세이」에서 주체인 카라쿨 양은 제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인간의 언어로 자신의 삶을 그려낸다. 카라쿨양의 삶은 양의 일대기이기도 하지만 양을 인간의 필요에 맞게 살상하는 인간들의 인간중심주의적 역사를 비판하고 카라쿨 양의 생애 드리워진 인간중심주의의 그림자를 고발하는 시이다.

시적 화자인 양이 설명하는 “양의 습성”은 “무리에 속한 이들의 안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양은 “육식동물의 표적”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배려라는 미덕을” “본능처럼 갖는다.” 이러한 양의 특징은 양의 생 전체를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가뉘버린 인간들의 이기심을 부각시킨다. 시 안에서 인간의 습성이 직접적으로 설명되진 않지만 “학명”을 지어주고 그들의 “존재를” 자신들의 “빈약한 심장 속에 가두어버리”는 인간의 습성을 통해 양의 습성인 “배려”와 반대되는 이기심을 목격할 수 있다. ‘학명’이란 생물학에서 생물의 종에 붙인 분류학적인 이름이다. 여기서 분류학은 인간의 기준에서 분류된 것이므로 학명을 붙이는 것 또한 인간의 기준 속에 비인간을 “가두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적 주체인 카라쿨 양이 “인간의 여자”의 젖을 먹고 자랐음에도 “학명”은 있으나 이름이 없다는 점에서 카라쿨 양들은 인간을 어미라고 부르고 있음에도 “이름 없는 것”(「빌어먹을, 차가운 심장」)이며 인간들이 이들을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자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카라쿨 양을 여러 번 “교배”시켜 인간의 필요에 알맞은 양을 만들어냈다. 여기서 인간의 필요는 자신들의 의식주와 부의 축적을 위함이다. “교배”된 카라쿨양의 삶은 단 두 가지로 나뉜다.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자궁에서 꺼내져 ‘인간에게 가족을 제공하는 것’과 죽지 않고 2년간 살아서 아이를 낳기 직전에 살상되어 태어나지도 않은 자신의 자식을 자궁 채로 뺏기고 ‘인간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다. 이들의 삶은 온전히 인간에게 속해져 있다. 주체인 카라쿨 양은 전자의 운명으로 태어나 “페르시안 가족털을 인간에게 주기 위해 태어나자마자 이 지상을 떠날 운명”이었으나 “젖을 준 인간의 어미 덕분에” 살아남는다. 하지만 이 삶은 자신이 “태어나던 그날” 끊어진 “육체의 어미”로부터 이어지는 “혈연의 보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이다. 결국 자신도 “육체의 어미”처럼 새끼를 낳다가 죽어 “인간의 먹이가” 되거나 “냉동육으로 바다를 건너게” 될 운명인 것이다.

이 시는 두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주체인 “나”에게 “육체의 어미” 말고 한 명의 어미가 더 있는데 그건 “인간의 어미”이다. “인간의 어미”는 내가 이미 태어났을 때 살상당한 “육체의 어미” 대신에 나에게 젖을 물린 존재이다. ‘나-육체 어미’ 관계와 ‘나-인간 어미’ 관계, 이 두 관계 사이에서 “나”는 본적 없는 “육체의 어미”가 걸었던 길을 내가 걸어야 한다는 “혈연의 보증”으로 관계 맺는 한편, 자신에게 젖을 물린 “인간의 어미” 덕분에 죽지 않고 살았다는 점에서 자신과 자신의 동족을 타자화하는 존재인 인간의 어미와도 생사적으로 관계 맺고 있다. 이러한 이중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탈식민 식민주체(colonial subject)이다. 식민주체는 제국이 우월하고 자국은 열등하다는 교육 아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지 못하고 길들여진 사람을 가리킨다.<sup>84)</sup> 이들은 “이중의식<sup>85)</sup> 또는 이중시선을 갖고 있”는데 “식민주의자들의 문화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토착문화라는 상호 적대적인 두 문화 사이에서 분열되는 의식 또는 세계 이해 방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sup>86)</sup>

발화하는 카라쿨양은 도살당하는 자신의 “벗”의 죽음으로 “육체의 어미”를, 자신에게로 이어진 “혈연의 보증”을 다시 한번 맞닥뜨린다. 인간이라는 틀 안에서 카라쿨 양은 “뒷다리로 몇 번 양버티면서 나가지 않으려고 앞다리를 힘없이 허공을

84) 로이슨 타이슨, 앞의 책, 867쪽 참조.

85) 이중의식 개념을 처음 제시한 책은 두보이스의 『흑인 민중의 영혼 The Souls of Black Folk』 (1903)이다. 같은 책, 867쪽에서 재인용.

86) 로이슨 타이슨, 같은 책, 867쪽.

향해 치켜들”거나 “날카로운 고드름 가위”가 “바람을 오려대”는 것 같이 “비명”을 지르며 인간의 틀을 거부하거나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만 카라쿨 양의 이러한 행위는 인간들에게 들리지 않거나 ‘목소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스피박이 말하는 하위주체는 ‘인간’의 범주이지만, ‘인간’이라는 틀 안에서 목소리를 내도 목소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카라쿨양의 삶과 위치 또한 스피박이 말하는 하위주체와 특징을 같이한다. 근대화 이후 인간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중심에 두고 비인간들을 객체로 여기며 살아왔다. “자연을 정복하겠다는 목표”<sup>87)</sup>는 의식적인 측면 뿐 아니라 무의식적인 측면에 깊숙이 자리 잡아 시간이 지날수록 무의식적이고 은밀하게 변형되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허수경 시인은 비인간 존재에게 목소리를 부여하여 비인간의 삶을 재현하고 인간의 자연(비인간)을 향한 폭력성을 고발한다. 비인간은 나라가 나라를, 인간이 인간을 점령했던 세월보다 더 길게 인간에게 점령당했다. 비인간 존재가 인간의 언어로 재현되거나 인간의 언어로 발화하는 것은 인간-비인간의 이분법적인 요소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중심적이다. 따라서 「카라쿨양의 에세이」 또한 인간중심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작업은 비인간 타자를 이해하고자 시도하는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카라쿨양인 “나”는 “산악을 누비던 오비에스 아리에스의 조상”이었던 “야생양”으로서 자신의 “원모습”이 현재의 자신에게 얼마나 남아 있을지 궁금해한다. “나”는 “야생양”의 정체성과 현재의 모습인 개량된 “카라쿨”의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을 빚는다. 이런 “나”의 혼란한 정체성은 “탈식민주의 정체성”으로 “나”는 “토착문화와 식민지 문화가 혼재된 잡종”<sup>88)</sup>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식민 통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토착문화”를 온전히 찾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듯 카라쿨 양인 “나”에게도 “야생양”으로서의 “원모습”을 찾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이러한 카라쿨 양의 현실에서 인간의 모습은 식민주의의 폭력성을 지니고 있다. 이 시는 근대 이후 인간-비인간의 관계에 내재된 문제성을 비인간의 직접적인 발화를 통해 고발하고 있다.

시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서 “개”가 등장하는데 “개의 주인”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시 안에서 화자인 카라쿨 양에게 “개”의 존재는 인간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

87)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김은령 옮김, 홍유희 감수, 에코리브르, 2011, 111쪽.

88) 로이슨 타이슨, 앞의 책, 870쪽.

이다. 하지만 인간-개의 관계는 개들이 “인간이 거처하던 마을로 내려와 인간이 남긴 음식물을 먹을 때부터”<sup>89)</sup> 시작되었다. 개는 카라쿨 양보다 먼저 “인간에게 가장 먼저 사육되었던”<sup>90)</sup> 존재이다.

“개”의 존재를 인식할 때 또 다른 이중 관계가 드러난다. 인간 어미는 나에게 젖을 물려서 나를 살게 한 존재이지만(인간 어미-나) 나의 어미의 위를 먹은 “개”의 주인이다.(인간 어미-개) 이러한 관계성이 시 안에서 가시화될 때 나는 비로소 자신의 “탄생에 내재된 공포”를 알아차린다. 여기서 “내재된 공포”란 ‘인간 어미’라고 생각했던 존재에 대한 실체이다.

이 시는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볼 때 ‘식민주체’가 자신의 이중성을 인식하게 되는 시라고 볼 수 있다.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가 인간의 역사에서 나온 사유라는 점에서 인간-비인간의 관계에 적용하기에는 이분법의 경계를 유지하는 방안일 수 있으나 인간-비인간 관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비인간을 향한 착취가 일반화되어 온 인간의 역사에서 비인간의 직접적인 발화를 인간의 언어로 재현하는 것, 즉 경계를 가시화하는 것 또한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겨울 병원은 영원한 얼음처럼 지워져갔다  
그걸 보면서 눈은 생각한다  
인간은 없다, 아니 인간을 달리 부를 단어가 없다

(겨울 병원의 밤은 혈관에 피를 실어 나르는 나뭇가지, 붉고도 검은 길 혈관을 다 내놓고 물구나무 서 있던 옛날의 우리같이, 혈관이 이렇게 황폐되기 전 우리는 사랑의 모든 몸을 안고 싶었다. 나무들의 물구나무 선 혈관, 그 굽주린 석양을 양말로 신으려고)

옆 병실에서 누군가 온 힘을 다하여 비명을 내지를 때  
간호사의 급한 발걸음은 지는 꽃처럼 소리 없이 운다

눈의 울음은 단어인가

---

89) 허수경, 『너 없이 걸었다』, 난다, 2015, 73쪽.

90) 같은 책, 73쪽.

언어의 비명 끝에 불러보는 이름인가  
누군가 울 때  
그건 물음일까 답일까  
영원 빙벽을 무너뜨리는 인간의 자동차  
미세먼지 필터  
아하! 그 더러운 손수건, 그건 호흡일까

사랑이여 더러운 손수건을 흔들며  
겨울이 사라질 때  
빙벽이 갇혀 있던 억만 년의 바이러스는 네게로 온다  
북극은 사라지며 말하네,  
죽음은 멀고 입술은 너무나 가까워서  
인간을 달리 부를 병을 나는 배우지 못했다

언 구름의 눈물로 엮은 한 장의 천처럼  
하늘이 팔랑거리는 겨울 병원  
북극곰은 눈 터널 속에서 아기를 낳으면서 눈을 감는데  
산란의 고통 속 이빨이 빠지듯 빙하는 무너지고  
억겁의 바이러스는 북극해를 헤엄쳐 당신의 바다로 간다

- 「겨울 병원」 전문

인류세는 ‘인간의 시대’, 즉 인류가 지질학적 흔적을 남길 정도로 자연에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시대라는 뜻이다.<sup>91)</sup> 환경과 인권은 이제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다. 환경문제를 인권에서도 다뤄야 하는 이유는 환경이 인간의 생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sup>92)</sup> 인류세는 근대가 정해놓은 인간-비인간의 이분법, 즉 인간이 비인간을 정복해야 한다는 사유가 완전히 인간의 착각이었음을 드러낸다. 허수경 시인은 기후위기 문제를 주제의식으로 하는 시를 다수 남겼다. 「겨울 병원」은 직접적인 방식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다루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 문제, 바이러스 문제, 겨울의 상실 문제가 동시에 한 편의 시 안에서 나타난다. 채효

91) 파울 크뤼천, 『인류세와 기후위기의 대가속』, 한울아카데미, 2022.

92) 조효제, 앞의 책, 창비, 2022, 174쪽.

정은 “세계를 이해하고 관계 맺는 근대적 사고, 자본주의적 관점, 신자유주의적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결코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sup>93)</sup>고 말한다. 조효정의 주장처럼 기후위기 문제는 자본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기후위기 문제 또한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로 인한 거대기업의 횡포가 신식민주의를 낳았기 때문이다. 시에서 “인간의 자동차”와 “미세먼지 필터”로 인해 자연의 “겨울”은 사라진다. 겨울이 사라지는 것은 “영원 빙벽” 즉 “빙하”가 녹아내리고, 무너지는 것이다. 겨울의 부재로 “얼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빙벽”에 “갇혀 있던 억만 년의 바이러스”가 “북극해를 헤엄쳐” “당신의 바다로 간다”고 표현되는데 “바이러스”의 문제는 역사에 있어서 인류의 존재에게 크게 위협을 가하는 문제였다. 뿐만 아니라 “빙벽”에 갇혀 있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기후위기 문제의 위험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의 화자는 시의 말미까지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자연이 주체가 되어 발화하는 부분이 연속해서 나타난다. 이러한 지점은 「카라쿨양의 에세이」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비인간을 하위주체로 여기고, 하위주체 비인간 존재에게 목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연에서 “눈은” 겨울이 “지워져가는” 것을 보면서 “생각한다”. 데카르트의 이분법에서 “생각”은 인간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시인은 “눈은 생각한다”라고 발화하면서 인간-비인간의 관계 속에서 역사에서 소외되었던 비인간에게 주체성을 부여한다. 또 5연에서 “죽음은 멀고 입술은 너무나 가까워서 / 인간을 달리 부를 병을 나는 배우지 못했다”고 “북극은 사라지며 말하”는데 이 구절에서는 ‘인간=병’이 성립된다. 비인간 자연 앞에서 인간이 만든 자본주의는 비인간 자연을 정복하고 빼앗는 존재로서 ‘병’인 것이다.

지금까지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 재현되는 역사를 통해 역사 속에서 소외되었던 하위주체들의 일상과 특히 여성들의 노동의 역할을 더 나아가 비인간에게 목소리를 주는 허수경의 시를 살펴보았다. 탈식민주의 생태비평은 인간에 한정되었던 탈식민주의 사유를 비인간에게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허수경 시 세계의 두 번째 확장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허수경 시인의 시에서 나타난 비인간의 특징을 이러한 관점으로 한정 짓기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

93) 채효정, 「이것은 상상력의 싸움이다」, 『제로의 책』, 뚝과뚝, 2022, 192쪽.

### 3.2 지구적 사회에서 ‘공생적 실재’로서의 객체

다시 「카라쿨양의 에세이」로 돌아가 보자면 이 시를 포함한 몇몇의 작품에서 허수경은 비인간의 직접적인 발화를 등장시킨다. 이러한 시적 발화를 통한 재현은 ‘비인간’을 하위주체로 여기고 그들을 ‘대변’함으로써 인간-비인간 관계의 문제성을 ‘다시-제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인간이 ‘비인간’을 대변하는 것이 결국 ‘인간이 정의 내린 비인간’을 기반으로 발화되는 것이며 이는 인간-비인간의 이분법적 사고를 견지한 재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인간이 하위주체로서 비인간을 대변하는 것은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의인화 문제는 인간과 비인간이 다른 존재일 때 문제시된다. 하지만 인간이 주체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객체로서의 인간, 즉 인간이라는 종으로서의 ‘인류’일 때 인간은 비인간과 ‘공생적 실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의인화는 ‘대변’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인화한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중심주의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sup>94)</sup>

가끔 너를 찾아 땅속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저 침침하고도 축축한 땅속에서 시간의 가장자리에만 머물러 있던  
너를 찾으려 했지

땅속으로 내려갈수록  
저 뿌리들 좀 봐, 땅에는 어찌먼 저렇게도 식물의 어머니들이  
작은 신경줄처럼 설켜서 아리따운 보석들을 빨랫줄에 걸어두는데  
저 얇은 시간의 막을 통과한 루비나 사파이어 같은 것들이  
땅이 흘린 눈물을 받은 양 저렇게 빛나잖아

가끔 너를 찾아 땅속으로 내려가기도 했단다  
사랑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세월 속으로 가고 싶어서  
머리를 지하수에 집어넣고  
유리처럼 선명한 두통을 다스리고 싶었지

---

94) 티모시 모턴, 『인류』, 김용규 옮김,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205쪽. 참조.

네 눈에 눈물이 가득할 때  
땅은 속으로 그 많은 지하수를 머금고 얼마나 울고 싶어 하나  
대양에는 저렇게 많은 물들이 지구의 허리를 보듬고 안고 있나

어쩌면 내가 밤 속에 누워 녹아갈 때  
물 없는 사막은 너를 향해 서서히 걸어올지도 모르겠어  
사막이 어쩌면 너에게 말할지도 몰라  
사랑해, 네 눈물이 지하수를 타고 올 만큼 날 사랑해줘

- 「밤 속에 누운 너에게」 전문

「밤 속에 누운 너에게」에서 시적 주체는 저월적 태도를 보인다. ‘저월’(低越, subscendence)이란 초월(transcendence)과 대립을 이루는 개념으로 티머시 모턴이 개념화한 새로운 전체론이다. 위를 지향하고 신과 인간같이 초월적 존재를 향해 가는 ‘초월’과 달리 ‘저월’은 공생적 실재, 즉 생명체들의 상호의존 관계로 내려감을 나타내기 위한 티머시 모턴의 용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전체가 그 부분들의 합보다 항상 작다.”<sup>95)</sup>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난 생태학적 인식이란 이런 존재자들 간의 상호의존적 얽힘으로서의 저월을 실천하는 것이다.<sup>96)</sup>

「밤 속에 누운 너에게」에서 시적 주체가 호명하는 “너”가 누구인지는 언급되지 않지만 “너”는 “땅속”에 있으며 “시간의 가장자리에만 머물러 있”고 녹을 수 있는 존재이다. “너”가 “녹아갈 때” “물 없는 사막은” “너에게” “사랑해, 네 눈물이 지하수를 타고 올 만큼 날 사랑해줘”라고 말한다. 여기서 “너”와 “물 없는 사막”이라는 객체는 상호의존적으로 얽히는 관계이다. 시에서 반복되는 “가끔 너를 찾아 땅속으로 내려가기도 했다”는 대목을 통해 ‘너’가 존재하는 땅 속에 내가 내려가는 하강의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는데 이는 수많은 생명체들의 상호의존의 관계인 공생적 실재이자 저월적 태도가 시 안에서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너”의 “눈물”은 땅속 “지하수”로, “지구의 허리를 보듬고 안고” 있는 “대양”으로 비유된다. “너”는 액체인 존재이거나 액체를 생산하는 존재이다. 액체는 경계가 없다는 점에서

95) 티머시 모턴, 같은 책, 164쪽.

96) 티머시 모턴, 같은 책, 306쪽. 참조.

인간-비인간으로 나뉘는 이분법에 반대되는 물질이다. 따라서 “너”는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와 존재가 스며들어 공생적 실재하는 존재이다. 하나의 존재가 다른 수많은 생명체들과 공생적 실재하는 것이 ‘저월’이라면 화자는 한 존재가 수많은 생명체들의 상호의존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생명체들이 유령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종으로서의 인간, 티모시 모턴이 ‘인간’과 구별한 ‘인류’에 해당한다. “지구라는 거대한 것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생물의 조건이”<sup>97)</sup>라고 말했던 허수경 시인에게 “너를 찾아 땅속으로 내려가”는 태도는 인간-비인간의 공생적 실재를 위한 노력이자 “사랑”을 향한 움직임이다. 저월을 통한 “사랑”은 인간이 야기한 자본주의로 지질학의 변화로 인류세를 맞닥뜨린 현시대의 기후-생태 위기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읽힌다.

어미를 죽인 자  
 아이를 죽인 자  
 현금을 강탈한 자  
 강간한 자  
 외국인을 살해한 자  
 이 모든 것이 당신 탓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십자가를 긋던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

저 많은 협곡을 돌아  
 저 많은 태풍을 뚫고 집에 돌아와  
 겨우 잠이 든 시인이  
 이 세계가 멸망의 긴 길을 나설 때  
 마지막 연설을 인류에게 했으면 했어

인류!  
 사랑해  
 울지 마! 하고

---

97) 허수경, 『오늘의 착각』, 난다, 2020, 52쪽.

(중략)

차곡차곡 접혀진 고운 것들 사이로  
폭력이 그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던 것처럼  
폭력이 짧게 시선을 우리에게 주면서  
고백의 단어들을 피륙 사이에 구겨넣는 것처럼

- 「삶이 죽음에게 사랑을 고백하던 그때처럼」 부분

「삶이 죽음에게 사랑을 고백하던 그때처럼」은 ‘공생적 실재’가 단절된 근대의 세계에서 시인의 역할을 말하고 있다. 본 연구에 실린 시를 기준으로 1연에는 온갖 폭력이 낭자한 세상이 그려진다. “허공에 십자가를 굿던 / 수많은 성도들”은 초월적 태도를 가진 존재이다. ‘초월적 태도’는 티모시 모턴의 ‘저월적 태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신과 인간같이 초월적 존재를 향해 가는 태도를 말한다. 인간-비인간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때 인간에게 신의 존재가 초월적 존재이듯 비인간에게 인간은 초월적 존재가 된다. 흥미로운 점은 시적 발화의 시점에서 “성도들”은 십자가를 ‘굿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를 ‘굿던’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초월적 태도는 과거형이 된다. 1연에서 2연으로 넘어가는 연결을 보면 이들은 과거에 초월적 태도를 가졌었으나 짐작컨대 초월적 태도로는 “멸망의 긴 길”에 들어선 폭력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시에서 표현되는 “멸망의 긴 길”은 인류세를 맞닥뜨린 인간의 현재와 미래를 의미한다.

허수경 시에서 ‘인류’는 중요한 시어이다. 양경언은 허수경의 시에서 자주 발견되는 ‘인류애’란 말에 주목하여 ‘인류애’를 ‘인간’이란 존재를 둘러싸고 있던 재래의 경계를 넘는 행위의 실천으로 본다.<sup>98)</sup> ‘인류’는 인간-비인간 관계에서 이분법적으로 나뉘어 초월적 존재로 여겨지는 ‘인간’과 달리 인간을 하나의 종으로 여기는 표현이며 ‘인류’를 발화하는 것은 근대의 산물인 이분법의 “경계를 넘는 행위의 실천”<sup>99)</sup>이다. 시인은 “세계가 멸망의 긴 길을 나설 때 / 마지막 연설”로 “인류!/ 사랑

---

98) “허수경에게 ‘인류애’란 인류의 역사가 ‘인간’ 개념의 정립 과정에서 지금껏 배제해왔던 존재들이야말로 ‘삶’을 추동해왔던 술한 관계의 일원임을 이해하고, 그를 통해 ‘인간’이란 존재를 둘러싸고 있던 재래의 경계를 넘는 행위의 실천이다” (양경언, 「최근 시에 나타난 젠더 ‘하기’(doing)와 ‘허물기’(undoing)에 대하여」, 『안녕을 묻는 방식』, 2019, 79쪽.)

99) 같은 책, 79쪽.

해/ 울지마!”를 외친다. “긴 길”의 끝에 “멸망”을 둔 인류에게 이러한 발화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멸망’으로서의 ‘인류세’ 앞에서 시인의 태도는 인간의 지난한 과오를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앞으로의 “길”을 걸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허수경 시에서 ‘인류’라는 시어는 티모시 모턴이 비인간화를 극복하면서 제안한 대안 개념으로서의 ‘인류’와 맞닿아 있다. 모턴에게 ‘인류세’란 인간이 인류세를 통해 사유함으로써 “깨어지기 쉽고 비일관적인 저월적 과잉객체로서의 종-개념”<sup>100)</sup>을 보게 되는 계기인데 허수경 시인 또한 ‘인류’로 부름으로써 하나의 종으로서의 인간을 인정한다. 이는 인간-비인간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생태계 안에서 비인간 존재들과 공존해야 할 존재로서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인의 마지막 연설을 다시 읽어보면 시인은 인간의 무리를 “인류”라고 부르며 객체로서의 인간을 상기시키고 “울지마!”라는 표현을 통해 멸망의 긴 길에 들어선 이들에게 끝이 정해져 있지만 끝나지 않은 여정을 상기시킨다. 또 “사랑해”라는 표현을 통해 앞으로의 대안을 말하고 있다. 시인의 시에서 “사랑”은 “인류”만큼이나 중요한 시어인데 시인이 말하는 ‘사랑’이란 감정적 표현이 아닌 인간의 폭력으로 물든 ‘기억’을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써 폭력을 재생산하지 않고 ‘평화’하는 것이다. 시인이 생각하는 ‘평화’는 인간이 자신들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인정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 시인이 정의 내린 평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태도는 “폭력이” “고백의 단어들을 피륙 사이에 구겨넣는” 이미지로 표현된다. “피륙”은 인류의 시간의 층위에 대한 비유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륙”의 사이에 “폭력이” “고백의 단어”를 “구겨넣는” 것은 인류가 자신들의 “피륙”(시간)과 폭력을 은밀하게 동일시 하는 것이 아닌 정확하게 분리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분리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킴으로써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자신들의 시간에 “구겨넣는” 것으로 기억하는 것, 이것이 허수경 시인이 말하는 ‘평화’를 이뤄내는 것에 가장 중요한 태도이다.

나는 그렇게 있다 너의 눈 속에  
 꽃이여, 네가 이 지상을 떠날 때 너를 바라보던 내 눈 속에 너는 있  
 다

---

100) 허수경, 같은 책, 180쪽.

다람쥐여, 연인이여 네가 바빠 겨울 양식을 위하여 도심의 찾길을 건  
너다 차에 치일 때  
바라보던 내 눈 안에 경악하던 내 눈 안에  
너는 있다

저녁 퇴근길 밀려오던 차 안에서 고래고래 혼자 고향을 치던 너의 입  
안에서

피던 꽃들이 고개를 낮추고 죽어갈 때  
고속도로를 달려가다 달려가다 신고 가던  
얼어붙은 명태들을 다 쏟아내고 나자빠져 있던 대형 화물차의  
하늘로 향한 바퀴 속에 명태의 눈 안에  
나는 있다

나는 그렇게 있다 미친 듯 타들어가던 도시 주변의 산림 속에  
오래된 과거의 마을을 살아가던 내일이면 도살될 돼지의 검은 털 속  
에

바다를 건너오던 열대과일과 바다 저편에 아직도 푸르고도 너른 잎을  
가진

과일의 어미들 그 흔들거리던 혈관 속에  
나는 있다 오래된 노래를 흥얼거리며 빨게를 찾는 바닷가  
작은 남자와 그 아이들의 눈 속에 나는 있다 해마다  
오는 해일과 홍수 속에 빨밭과 파괴 속에  
검은 물소가 건너가는 수렁 속에

과거에도 내 눈은 그곳에 있었고  
과거에도 너의 눈은 내 눈 속에 있어서  
우리의 여관인 자연은 우리들의 눈으로  
땅 밑에 물 밑에 어두운 등불을 켜두었다  
킁킁한 곳에서 아주 작은 빛이 나올 때  
너의 눈빛 그 속에 나는 있다  
미약한 약속의 생이었다  
실핏줄처럼 가는 약속의 등불이었다

「너의 눈 속에 나는 있다」는 하나의 존재를 둘러싼 생태학적 존재들을 드러내는 시라고 볼 수 있다. 이 생태학적 존재는 유령적 존재인데 ‘유령’은 “살아 있거나 죽은 것이 아니라”<sup>101)</sup> 살지도 죽지도 않은 존재이다. 화자는 동사 “있다”를 통해 그들의 존재를 드러낸다. 나와 너는 인간과 비인간, 비인간 중에서도 동물, 자연, 사물에 관계 없이 서로에게 속해 “있다”. 유령성을 인정할 때 인간-비인간의 이분법적 경계는 사라진다. 인간인 “내” 속에 비인간인 “너”가 이미 존재하는 유령성에서 “내”가 나를 정복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너의 눈 속에 나는 있다」에서 나와 너의 존재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과거에도 너의 눈은 내 눈 속에 있어서” “너의 눈빛 그 속에 나는 있다”는 대목을 통해 나와 너가 서로에게 속하는 관계를 인정하는 발화이며 근대의 ‘단절’의 사고에서 이러한 시적 발화는 인간-비인간 관계의 폭력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복’은 잘못된 관계를 해체하는 것이자 인간-비인간의 연대를 의미하지만 여기서 ‘연대’는 새로운 관계의 도달이 아니라 원초적 ‘연대’로의 회귀이다. 인간-비인간의 관계에서 한 존재는 본래 과거에서부터 다른 존재자들과 얽힌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비인간의 ‘단절’적 관계, 즉 이분법적 관계는 원초적 ‘연대’의 단절로서의 근대적 사고이다.

티모시 모턴은 생태학적 존재자들을 유령적<sup>102)</sup> 존재라고 말한다. 모턴에 의하면 유령성은 하나의 존재자가 자기 자신과 그 유령적 후광으로 이루어진 공생적 공동체이다.<sup>103)</sup> 이러한 접근에서 볼 때 전체는 부분들의 합보다 항상 작다. 모턴의 관점에서 나 자신은 다른 존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존재자들은 “유령들에 대한 의식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다. 따라서 자신을 둘러싼 혹은 자신에게 스며들어 있는 다른 존재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려는 것은 “인간중심주의적 광기”<sup>104)</sup>이며 모턴은 초객체론을 통해 인간중심주의적 광기를 중지시킨다.<sup>105)</sup>

앞서도 언급했지만 인류세는 세계의 “멸망”을 의미하지만 모턴에게 ‘인류세’라

---

101) 허수경, 앞의 책, 95쪽.

102) 허수경, 같은 책, 95쪽.

103) 허수경, 같은 책, 168쪽.

104) “인종차별의 산물들은 비인간적인 유령이 어른거리지 않는 ‘건강한 인간 존재자’를 구성하려는 시도이다”, 같은 책, 137쪽.

105) 허수경, 같은 책, 114쪽.

는 패러다임은 인간이 인류세를 통해 사유함으로써 “깨어지기 쉽고 비일관적인 저월적 과잉객체로서의 종-개념”<sup>106)</sup>을 보게 되는 계기이다. 따라서 인류세는 이전의 ‘단절’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시인은 인류세라는, 인간이 초래한 위기 앞에서 비인간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 인간을 하나의 종으로 본다. 객체로서의 인간, 즉 인류가 되려 하려는 것이다. 시인이 비인간을 하위주체로 여기고 재현대상을 확장시키는 것이 허수경 시 세계의 두 번째 확장이었다면 인간을 객체로 보는 시선은 또 다른 확장을 의미하며 시인의 시 세계의 세 번째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모턴에 의하면 인간과 비인간의 공생적 실재는 인류의 기본값이다. 하지만 근대화론에 의해 인간-비인간의 연대는 단절되었고 시인은 이러한 현실의 결과인 인류세 앞에서 “미약”해진 인간-비인간 관계의 공생적 실재를 “약속”으로서 기억함으로써 되찾는다. 진정한 “사랑”을 외치는 것, 내 안에 너가 있고 너 안에 내가 있음을 아는 것(「너의 눈 속에 나는 있다」), 그것이 ‘공생적 실재’이며 허수경이 말하는 “사랑”이다.

---

106) 허수경, 같은 책, 180쪽.

## IV. 결론

이 연구는 허수경 시에 나타난 역사적 재현 양상을 살피고 허수경의 시 세계에서 재현되는 대상의 확장 지점을 통해 허수경의 시가 역사적-동시대적 과제를 전면화하고 있음을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II장 ‘재현되지 않은 역사의 재현’에서는 상처의 연속이었던 한반도의 역사 중에서도 재현되지 않은 역사에 주목하여 허수경 시에 나타난 ‘하위주체로서의 여성’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을 살펴보았다. 2장 1절에서는 허수경 초기시에서 나타난 역사에서 소외된 하위주체의 일상 재현에 주목한 시편들을 살펴보았다. 허수경에게 ‘재현’이란 역사에서 희생된 존재를 기억하는 것이자 인간의 폭력성을 잊지 않으므로써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작업이다. 2장 2절에서는 허수경의 진주에서 서울로의 첫 번째 ‘이주’를 시 세계의 첫 번째 확장으로 보고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두 번째 시집에 실린 시편들을 살펴보았다. 2장 1절에서 살펴본 시에서 나타나는 재현은 시인이 겪지 않은 역사를 ‘다시-제시’하고 하위주체의 일상을 통해 그들을 ‘대변’하였다면 2장 2절에서는 시인 개인의 고통으로서의 재현이 나타난다. 허수경 시에서 서울이라는 도시는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장소로 그려지는데 이것은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개인의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노동자로, 여성으로, 하위주체로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온 고통이다. 자본주의는 하위주체들의 삶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이데올로기로 인한 내적 감응으로 시인의 시 세계는 확장된다. 이후 시 세계에서 나타나는 고고학적 이미지와 타국의 전쟁을 재현하는 시는 시 세계 확장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III장 ‘인간-비인간, 지구적 관계의 재현’에서는 탈식민주의 생태학에서 초객체론으로 이어지는 생태학적 사유를 통해 ‘하위주체로서의 비인간’과 ‘지구적 사회에서 ‘공생적 실재’로서의 객체’를 살펴보았다. 3장 1절에서는 탈식민주의 생태학의 관점에서 비인간의 직접적인 발화가 드러나는 허수경의 시편들을 살펴보고 그 의의와 한계를 고찰해 보았다. 허수경 시인은 비인간의 직접적인 발화를 통해 인간-비인간 관계에서 근대가 심어놓은 이분법적 경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작업은 탈식민주의 생태학이 강조했던 인간-비인간 관계의 유기적·수평적 관계 회복으로서의 작업이다. 하지만 인간이 변화하지 않고 인간의 과거를 고발하며 비인간을 인간과 같은 ‘주체’로 여기는 것은 인간-비인간의 이분법을 해결하지 않은 채 인간의 방법으

로 인간-비인간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인간중심적이다. 이러한 탈식민주의와 생태주의를 결합하려는 시도 외에도 생태적 사유로 또 다른 새로운 실재론이 제기된다. 3장 2절에서는 인간을 객체화하는 시편을 읽으며 티머시 모턴의 초객체론의 관점에서 객체로서의 인간-비인간의 ‘공생적 실재’가 시적 발화를 통해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았다. 허수경 시인은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통해 티모시 모턴이 말한 유령성, 즉 자신이 하나의 존재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는 인간-비인간 관계를 재현하는 시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앞서 비인간을 하위주체로 보는 시선이 인간을 바꾸지 않고 비인간에게 인간의 기준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었다면 인간을 하나의 종으로 보는, 즉 객체로 보는 재현으로서의 시편이 나타난다. 이러한 작업은 3장 1절에서의 작업과 달리 기후-생태 위기 복합 시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허수경의 시인은 식민지, 전쟁, 독재, 난민으로 나타나는 역사의 상처 속 하위주체들의 일상을 재현하고 대변하는 것으로 시 세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시 세계의 특징에 주목한 연구들이 대거 발표되었다. 하지만 시인의 시적 발화를 통한 재현은 한 시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이전의 시대부터 자신의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포괄한다. 시인은 여섯 권의 시집을 발표하며 재현의 대상을 확장시킨다. 따라서 허수경 시인의 시를 한 가지 사유로 읽기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축적된 시간’을 통해 허수경은 역사적-동시대적 과제를 전면화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장르라는 인식에 시의 정치성을 보여주는 예시이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허수경에게 시란 “말로 평화를 이루지 못한 좌절의 경험”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을 통해 “평화하”<sup>107)</sup>는 것이다. 재현되지 않은 것들의 재현은 인간의 역사에서 지나온 과오를 잊지 않는 노력이며 재현의 시적 발화를 통해 남성과 여성은, 인간과 비인간은, 제1세계와 제3세계는 ‘공생적 실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개인적이고 감성적이라고 치부되었던 『혼자 가는 먼 집』에서의 시적 발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신적 난민’으로 살아가는 하위주체의 삶에 주목한 작업이라는 것은 논증하고 더 나아가 허수경 시인이 재현하는 대상으로서 하위주체의 존재론적 지위가 인간에서 비인간으로 확장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읽기

107) 허수경,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문학과지성사, 2005, 뒤표지 글.

는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연구되어온 기존의 허수경 시 연구에서 누락되었던 『혼자가 가는 먼 집』과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의 의미를 찾고 허수경의 시에서 나타나는 하위주체의 존재론적 지위 확장의 중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후-생태 복합 위기 시대에 허수경의 시는 역사적-동시대적 과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한 시대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한 점에서 시인의 시는 감상적이고 한 시대를 대변하는 시를 넘어 시의 정치성으로 여전히 살아 있다.

허수경 시에 드러나는 시간의 축적성은 시인이 타계한 이후에도 유효하다. 허수경의 시가 하나의 순간과 하나의 시대에 매몰되지 않는 것은 시인이 이방인으로 서의 삶을 살아냄으로 자신의 시 세계를 연속적으로 확장시켰기 때문이다. 허수경의 시는 기후-생태 복합 위기 시대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작용하며 이후에도 허수경의 시는 더 다양한 주제를 통해 연구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허수경,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실천문학사, 1988.  
\_\_\_\_\_, 『혼자 가는 먼 집』, 문학과지성사, 1992.  
\_\_\_\_\_, 『내 영혼은 오래 되었으나』, 창비, 2001.  
\_\_\_\_\_,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문학과지성사, 2006.  
\_\_\_\_\_,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 문학동네, 2011.  
\_\_\_\_\_,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 문학과지성사, 2016.  
  
\_\_\_\_\_, 『너 없이 걸었다』, 난다, 2015.  
\_\_\_\_\_, 『그대는 할말을 어디에 두고 왔는가』, 난다, 2018.  
\_\_\_\_\_, 『나는 발굴지에 있었다』, 난다, 2018.  
\_\_\_\_\_, 『오늘의 착각』, 난다, 2020

### 2. 단행본

- 가야트리 스피박,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2013.  
\_\_\_\_\_, 『다른 세상에서』, 여이연, 2008.  
강혜빈 외, 『빛 속에서 이를 수 없는 일은 얼마나 많았던가』, 문학과지성사, 2023.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에코리브르, 2011.  
로이슨 타이슨, 『비평 이론의 모든 것』, 엘피, 2012.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 푸코, 파농, 사이드, 바바, 스피박』, 살림, 2006.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웅진사이언스, 2013.  
스티븐 모튼, 『스피박 넘기』, 엘피, 2005.  
아미타브 고시, 『대혼란의 시대』, 에코리브르, 2021.  
양경언, 「최근 시에 나타난 젠더 ‘하기’(doing)와 ‘허물기’(undoing)에 대하여」, 『안녕을 묻는 방식』, 2019.

이와우치 쇼타로, 『새로운 철학 교과서 - 현대 실재론 입문』, 도서출판b, 2020.

이유혁 외, 『생태와 대안의 로컬리티』, 소명출판, 2017.

조효제, 『침묵의 에코사이드』, 창비, 2022.

채효정, 「이것은 상상력의 싸움이다」, 『제로의 책』, 돛과닢, 2022.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2001.

티모시 모던, 『인류』,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파울 켈란, 『파울 켈란 전집』, 허수경 옮김, 문학동네, 2020.

파울 크뤼첸, 『인류세와 기후위기의 大가속』, 한올아카데미, 2022.

### 3. 논문 및 평론

김보경·김미라, 「한국어를 지방화하기-허수경 시의 언어 미학에 관한 시론」, 구보학보 33호, 구보학회, 2023, 379-417쪽.

김지율, 「허수경 시에 드러나는 헤테로토피아와 생태적 상상력」, 배달말 69집, 배달말학회, 2021, 437-466쪽.

김지율, 「허수경 시의 ‘고향’이라는 헤테로토피아의 변모와 서발된 연구」, 우리말글 93호, 우리말글학회, 2022, 259-292쪽.

김진선, 「허수경 시에 나타난 윤리적 주체성 연구 - 전쟁 관련 시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65호, 한국현대문학회, 2021, 259-297쪽.

박소영, 「허수경의 시와 산문에 내포된 고아성과 연대성 연구」, 리터러시 연구 13권 4호, 한국 리터러시 학회, 2022, 453-487쪽.

박은선, 「허수경 시의 디아스포라 의식 연구」, 2022

방승호, 「허수경 시의 시간의식 연구」, 어문연구 99호, 어문연구학회, 2019, 189-211쪽.

백선율·이경수, 「허수경 시의 공동체 의식 연구」, 국제어문 93호, 한국어와문학, 2022, 139-173쪽.

신용목, 「1990년대 한국 여성시에 나타난 ‘액화’ 이미지 연구」, 한국시학연구 64호, 한국어와 문학, 2020, 65-90쪽.

신정환, 「탈식민주의 생태비평과 라틴아메리카 문학」

오형엽, 「허수경 시의 구조화 원리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81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20, 159-189쪽.

이경수, 「1980년대 여성시의 주체와 정동-최승자, 김혜순, 허수경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37-78쪽.

이나영, 「초/국적 페미니즘 -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의 정치적 확장」, 2003

이은영, 「허수경 시에 나타난 알레고리 양상」, 여성문학연구 45호, 여성문학연구, 2018, 508-535쪽.

이지은, 「허수경 시의 기억 형상화 방식 연구」, 여성문학연구 5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2, 210-224쪽.

이혜순, 「허수경 시에 나타난 ‘슬픔’의 전개 양상 연구 -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를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25호, 국제한인문학회, 2019, 275-310쪽.

이혜원, 「한국 여성시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연구: 고정희, 김승희, 허수경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321-353쪽.

전명환·이경수, 「허수경의 언어공동체 의식과 방언시 작업의 의미」, 우리문학연구 72호, 우리문학회, 2021 455-489쪽.

조연정, 「1990년대 젠더화된 문단에서 페미니즘하기-김정란과 허수경을 읽으며」, 구보학보 27호, 구보학회, 2021, 291쪽.

최유준, 「블루스와 ‘슬픈 음악’의 정치학」, 音.樂.學 22호, 한국음악학학회, 2012, 116쪽 참조.

유가은, 『허수경 시에 나타난 ‘당신’의 의미와 주체의 형성』,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강수원, 『허수경 시 연구-시적 주체와 주제 의식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 4. 기사

김수영, 「허수경 시인, 몇천년 후 우리 삶은 몇 센터의 흔적으로 남을까?」, 채널에스, 2012년 12월.

박선주, 「약자에게 아부하는 세상을 꿈꾸는 시인 허수경」, 노컷뉴스, 2011년  
2월 8일.